

大足 寶頂山 石窟의 地獄變相 研究*

金 廷 禧**

차 례

- I. 머리말
- II. 中國의 地獄變相
- III. 大足石窟 地獄變相의 造成背景
- IV. 寶頂山石窟 地獄變相의 圖像
- V. 寶頂山石窟 地獄變相의 所依經典
- VI. 寶頂山石窟 地獄變相과 韓國 十王圖像과의 關係
- VII. 맺음말

I. 머리말

인도에서 발달된 석굴사원의 전통은 불교의 동점에 따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이르러 많은 석굴사원을 탄생시켰다. 그중 중국 四川省에 위치한 大足石窟은 重慶市에서 15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석굴사원으로서 唐, 宋대의 佛敎, 儒敎, 道敎彫像이 풍부하게 남아있어 일찍부터 주목받아 온 곳이다(圖 1). 이 석굴에 조각된 수많은 變相은 그동안 우리나라 高麗佛畫의 圖像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 이래 국내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지만¹⁾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족현에 위치한 많은 석굴 가운데 沱江가의 寶頂山石窟 大佛灣 第20龕에는 높이 14m, 폭 20m에 달하는 중국 남송대의 지옥변상이 새겨져 있는데(圖 2), 모두 4단에 걸쳐 조각되어 있는 이 변상은 남송대의 지옥신앙을 근거로 한 것으로, 특히 남송대 시왕도를 비롯한 지옥관련 불화에 보이는 지옥변상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圓光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副教授

1) 鎌田武雄, 「大足石窟と高麗佛畫」, 『韓國美術』 2: 新羅-高麗美術(秦弘變 編著, 講談社, 1987), pp. 274-275.

있어 당시 중국의 지옥신앙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圖 3). 특히 이 지옥변상도에 나타난 시왕 각각의 지옥장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시왕의 주재지옥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우리나라 시왕신앙의 형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지만, 양자 간의 관계는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옥변상에 刻書된 시왕의 贊文은 十齋日信仰에 의한 것으로, 조선시대 16세기에 板刻된 시왕판화에 이와 동일한 도상이 보이고 있어 大足石窟과의 친연성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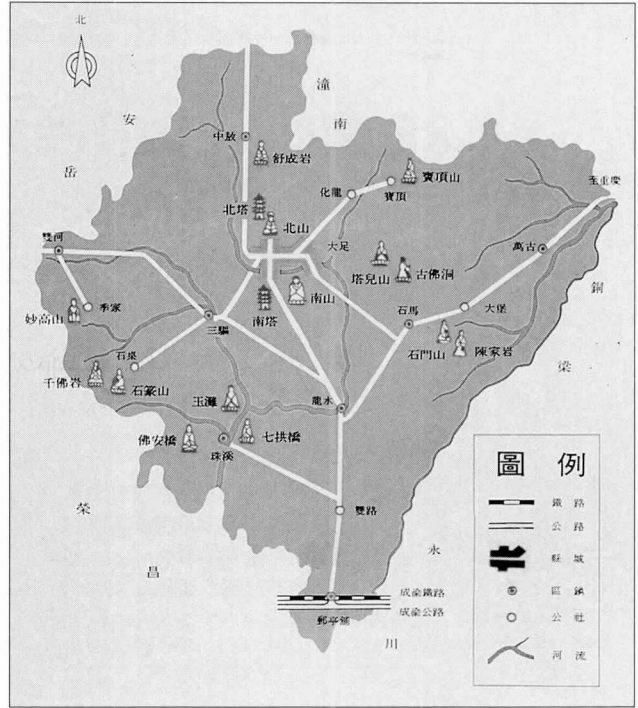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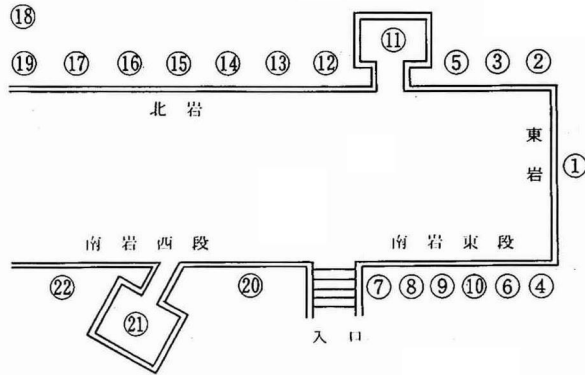


圖 1. 大足石窟 위치도.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 중국 보정산석굴의 지옥변상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왕신앙의 성격을 밝히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먼저 지옥변상의 기원과 전개에 대하여 살펴본 후 남북조시대 이래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중국의 지옥변상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보정산석굴 지옥변상의 조성배경으로서 사천지역의 불교와 불교미술에 대하여 고찰한 후 寶頂山 20號龕 지옥변상의 구조와 내용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 지옥변상은 과연 어떠한 경전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가를 조각의 榜題를 통해 밝혀보고, 마지막으로 대족의 지옥변상이 우리나라의 시왕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막연하게 우리나라의 시왕도 圖像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大足石窟의 지옥변상에 대한 연구로서, 寶頂山石窟의 시왕도상과 찬문의 내용을 통해 그것이 우리나라의 시왕도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밝혀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陸信忠派의 시왕도에 의해서 주로 연구되어 오던 중국 남송대 지옥도 연구에서 보다 시야를 넓혀 동시대의 조각인 寶頂山石窟의 지옥변상을 연구하므로써, 중국 남송대 지옥신앙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圖 2. 大足石窟 地獄變相 위치도



第1組

1. 釋迦涅槃像
2. 釋迦誕生圖
3. 九龍洗太子圖
4. 遇生老病死圖
5. 孔雀明王
6. 千手觀音

第2組

7. 護法像
8. 六道輪回圖
9. 大寶樓閣圖
10. 華嚴三聖像

第3組

11. 毘盧道場
12. 父母恩重經變相圖
13. 雷音圖
14. 大方便佛報恩經變相圖
15. 觀無量壽佛經變相圖
16. 六耗圖
17. 地獄變相圖

第4組

18. 柳本尊行化道場
19. 十大明王

第5組

20. 牧牛道場
21. 圖覺道場
22. 正覺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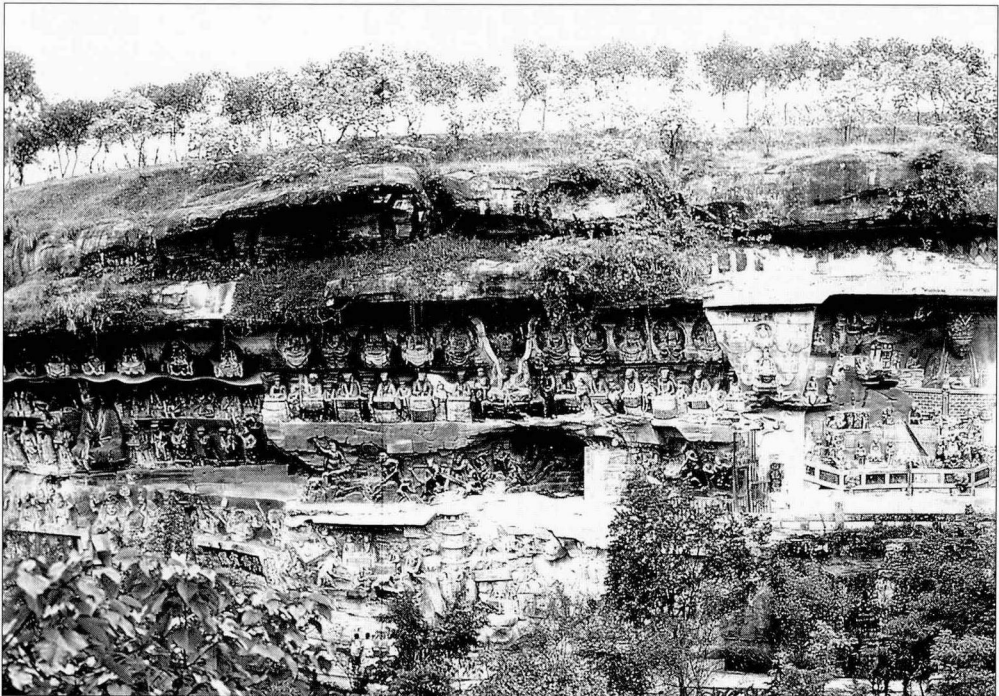


圖 3. 寶頂山石窟 地獄變相 전경, 大佛灣 20號龕, 남송대, 中國 四川省 大足縣.

II. 中國의 地獄變相

1. 地獄變相의 起源과 展開

인도에는 기원전 10세기경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헤브라이 등의 셈족과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지옥사상이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²⁾ 이에 따라 고대 아리아족의 문헌인 『리그 베다(Rig-Veda)』에서는 死者의 주재자인 야마(Yama)와 그가 거주하는 세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³⁾ 『아타르바 베다(Atharva Veda)』에서는 악마와 마술사, 살인자들이 사는 빛이 없는 어두운 지하세계인 지옥, 즉 나라카(Naraka, 奈落加)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지옥은 야마의 천국과는 대립되는 세계로 묘사되고 있다.⁴⁾ 그뒤 후기 베다문헌에 이르게 되면 야마는 인간의 선악 행위를 판정하는 왕으로, 또 사후의 樂土 야마세계는 사후심판을 행하는 관념으로 변모하였으며,⁵⁾ 브라만 문헌에서는 지옥편력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도 고대의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은 기원전 2세기경에 성립된 『마누(Manu)법전』에 이르면 21지옥으로 정리되었고, 불교의 체계안에 들어와 더욱 구체화되었다.⁶⁾ 불교에 수용된 야마는 한편으로는 하늘에 올라 夜摩天(焰摩天)이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땅으로 내려와 閻羅王이 되어 지옥의 주재자가 되었다. 佛典 중에서 가장 초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法句經』에서는 생전의 악한 행위 또는 거짓말로 인하여 사후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는 형태를 지옥이라 표현하였으며,⁷⁾ 아쇼카왕 이전에 성립된 『숫타-니파아타 Sutta-nipāta』는 惡口中傷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자가 떨어지는 지옥의 양상을 여러가지로 묘사하고 있다.⁸⁾ 이밖에 『長阿含經』이나 『增一阿含經』에서도 여러 지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⁹⁾

2) 김승혜, 「죽음에 관한 종교학적 이해」, 『죽음이란 무엇인가』(도서출판 窓, 1990), p. 6.

3) 정승석 편역, 『리그베다』(김영사, 1984) 참고.

4) 盧法錫, 「佛敎의 地獄考察-正法念處經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1985), p. 6.

5) Keith.A.B., *The Religion and Philosophy of the Veda and Upanishad*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p. 409.

6) 石田瑞磨, 『地獄』(法藏館, 1985), p. 13.

7) 『法句經』 卷下 第30 地獄品(麗藏 卷30, p. 573; 大正藏 4, p. 570), “妄語地獄近 作之言不作 二罪後俱受自作自牽往 衣在其身 偽惡不自禁 苟沒惡行者 終則墮地獄.”

8) 『숫타-니파아타』 제3편 제10장에서는, 수행승 코오카알리아가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불과 목련을 중상모략한 일로 인하여 죽어서 紅蓮地獄에 떨어지는 설화를 이야기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자가 떨어지는 10지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地獄思想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옥은 분명히 業報思想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9) 高田 修는 「地獄と地獄繪」, 『佛敎美術史論考』(中央公論美術出版, 1969), pp. 284-285에서 『長阿含經』·『增一阿含經』 등에 보이는 八大地獄과 그에 딸린 小地獄을 表로써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圖 4. 五趣生死輪圖, 5세기말, 토벽채색, 인도 아잔타석굴 제17굴 정면회랑 왼쪽벽.

이러한 지옥사상은 더욱 발달해서 『大毘婆沙論』이나 『正法念處經』·『俱舍論』·『大智度論』 등 후기 불전에 이르게 되면 힌두교 본래의 業報思想이 더욱 체계화되어 본격적인 지옥사상을 발전시켰다. 더우기 2세기 후반경에 이르러서는 『十八泥梨經』과 같이 지옥에 관한 경전이 출현하는 등 지옥사상은 완전한 체계와 질서를 갖추어갔다.¹⁰⁾

이와 같은 지옥사상의 발달에 따라 인도에서는 일찍이 사원 안에 지옥도가 그려졌다. 초기 경전인 『根本說一切有部毘那耶雜事』에는 사원의 입구 측면벽에 五趣生死輪을, 浴室과 火室에 天使經의 범식에 의한 그림과 약간의 地獄變相을 그렸다고 기록하고 있어¹¹⁾ 고대 인도에서는 地獄變相 내지 五趣生死輪과 같이 지옥을 묘사한 그림이 사원에 벽화로 그려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그러한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과연 오취생사륜이나 지옥변상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취생사륜의 형태에 대하여 '원을 5등분하여 각 부분에 지옥·축생·아귀·인·천의 五惡趣의 모습과 十二緣起의 내용을 그렸다고 하는 『根本說一切有部毘那耶』의 기록¹²⁾과 아잔타 17굴 입구벽에 남아있는 오취생사륜도 일부(圖 4, 굵타시기)는 기원전

10) 2세기 후반 安世高가 번역한 經으로 18地獄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다. 泥梨는 지옥을 의미하는 Niraya(泥梨耶)의 음寫이다.

11) 『根本說一切有部毘那耶雜事』卷17(麗藏 卷22, p. 711; 大正藏 24, p. 283), “給孤長者 施園之後作如是念若不彩畫便不端嚴 佛若許者我欲莊飾(中略) 佛言長者 於門兩類應作執杖藥叉 次傍一面作大神通變 又於一面畫作五趣生死之輪 簷下畫作本生事 佛殿門傍畫持鬘藥叉 於講堂處畫老僧苾芻宣揚法要 於食堂處畫持餅藥叉 於庫門傍畫執寶藥叉 安水堂處畫龍持水瓶著妙瓔珞 浴室火堂依天使經法式畫之 并畫小多地獄變 於瞻病堂畫如來像躬看病 大小行處畫作死屍形容可畏 若於房內應畫白骨髑髏體.”

12) 『根本說一切有部毘那耶』卷34(大正藏 23, p. 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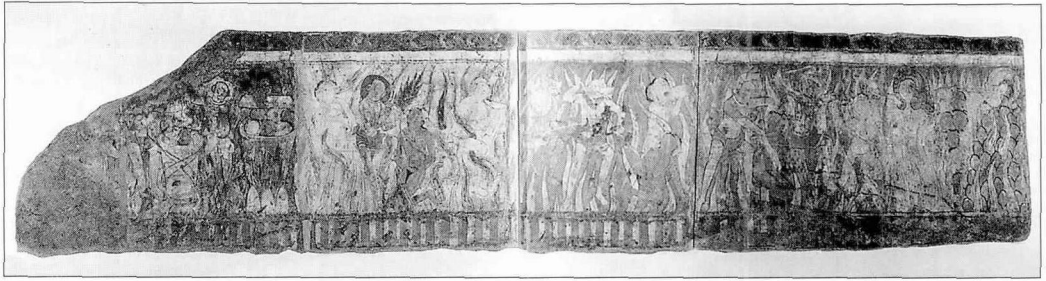


圖 5. 地獄圖, 600년경, 50X260cm, 土壁彩色, 키질 千佛洞 第1區 惡鬼洞, 독일 베를린인도미술관소장.

2~3세기 경부터 인도에서 지옥변상이 그려졌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¹³⁾

이외에도 중앙아시아의 호탄에서는 라와크(Rawak)의 대다수 사원의 勤行堂 입구에 四天王, 須彌山圖와 함께 생사유회도가 그려져 있음이 보고된 바 있고,¹⁴⁾ 서역에서는 키질(Kizil) 千佛洞 제1구 惡鬼洞벽화(600년경)와 地獄壺洞벽화(6-7C)가 남아있다. 惡鬼洞 壁畫(圖 5)는 20세기초 중앙아시아 지역을 조사한 독일탐험대에 의해 입수된 유물 중의 하나로 현재 베를린 국립인도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¹⁵⁾ 가로 260cm, 세로 50cm의 벽면에 지옥의 모습이 6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오른쪽(向左)부터 차례로 인물상 일부, 亡者를 절구에 넣어 찧는 장면, 솥에 넣어 삶는 장면, 惡鬼가 亡者에게 뜨거운 물질을 먹이는 장면, 긴 창으로 찌르는 장면, 머리를 잡고 목을 베는 장면, 羊頭山 사이에 亡者가 갇혀있는 장면 등 지옥에서의 갖가지 고통상들이 橫으로 나열되어 그려져 있다. 채색은 갈색·살색·담청색이 사용되었으며, 배경에는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이 動的으로 묘사되어 있어 지옥의 광경을 더욱 실감나게 하고 있다.

이 밖에 생김(Sängim)의 제7사원 벽화단편(8-9C), 무르투크(Murtuq) 제3구 주건축군 下堂 벽화편(9-10C), 베제크릭(Bezeklik)의 제8사원 本堂벽화(9-10C)에도 五趣 내지 六道를 주제로 한 벽화가 남아있다.¹⁶⁾ 이 중 베제크릭 壁畫는 하단에는 地獄의 여러 고통을 묘사하고 상단에는 五道를 그린 것인데, 중앙상위의 天上道 圖像부분은 결여되었으나 오른쪽의

13) 五趣生死輪圖를 비롯한 生死輪廻圖에 관해서는 金廷禧, 「生死輪廻圖考」, 『講座 美術史』11號(韓國佛教美術史學會, 1998. 12), pp. 99-147 참고.

14) 賴富本宏, 「インド・ラダック地方のラマ教美術調査報告(下) - 壁畫を中心として」, 『佛教藝術』125號(佛教藝術學會, 1979. 7), p. 43.

15) 이 그림은 A. von. Le Coq, *Diebud. Spätantike*.IV.ss.16-17 Taf. 9d; 高田 修, 「地獄と地獄繪」, 앞책(1969), 圖191; J.G.Griffiths, *The Paintings in the Buddhist Cave Temples of Ajanta*, plate 56으로 일찌기 소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0월 1일에서 11월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실크로드 美術展〉에 출품되었다.

16) 高田 修, 「地獄と地獄繪」, pp. 291-296.

人間道·畜生道, 왼쪽의 修羅道·餓鬼道는 남아 있어 당시 지옥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⁷⁾

이와 함께 5세기경 서역에서는 盧舍那佛의 신체 안에 六道의 세계를 묘사하는 盧舍那法界人中圖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盧舍那法界人中像은 『화엄경』의 '佛即法界'라는 사상, 즉 불타는 영원불멸한 세계[法界]라는 개념이 형상화된 것으로¹⁸⁾ 일찍이 서역지역에서 그 도상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4세기경 호탄출토 佛竝坐像을 시작으로 쿠차, 카라샤르의 쇼르축 등에서는 盧舍那佛의 신체 속에 인물, 須彌山, 化佛, 六道 등 다양한 도상을 묘사한 盧舍那法界人中像이 다수 제작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그려진 것 중의 하나인 키질석굴 제 13굴의 盧舍那法界人中圖 벽화(圖 6)는 부처의 가슴에 여러 존상들이 묘사된 3층의 누각이



圖 6. 盧舍那法界人中圖, 4세기, 쿠차키질석굴 13굴.

17) 松本榮一, 『敦煌畫の研究』(東方文化學院 東京研究所, 1937), 圖108 참고.

18) 신체 중에 불가사의한 형상을 표현한 존상에 대하여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松本榮一로서, 그는 이러한 상들을 華嚴教主인 盧舍那佛의 한 형태로 추정하였다. 松本榮一, 「華嚴教主盧舍那佛圖」, 『敦煌畫の研究』(1937), pp. 291-315. 盧舍那法界人中圖라는 명칭은 人體 중에 法界의 형상을 도시한 노사나불상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吉村 愔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계속 사용되고 있다. 吉村 愔, 「盧舍那法界人中像の研究」, 『中國佛教圖像の研究』(東方書店, 1983), p. 18.

그러져 있고, 팔다리와 광배 가득 원형구획이 있어 각 구획 내부에 여러 존상들이 묘사되어 있으며, 두 다리 사이에는 두 팔을 위로 올리고 절규하는 듯한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도를 묘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에서는 일찍이 기원전 2~3세기 경부터 사원벽화에 지옥변상 및 생사윤회도 등 지옥관계 그림이 그려졌으며, 이러한 지옥도는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으로 전래되어 키질, 생김, 무르툰, 베제크릭 석굴사원 등지에서 사원벽화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그와 함께 盧舍那佛의 신체 안에 지옥도를 비롯한 육도의 모습을 그려넣은 盧舍那法界人中像이 제작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지옥도상은 중국으로 전해져 다양한 지옥변상을 낳게 되었다.

2. 中國의 地獄變相

중국에는 기원후 1세기경 인도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교의 지옥사상도 함께 전해졌다.¹⁹⁾ 특히 남북조시대에 이르게 되면 宋代(427-479) 이후 불교의 지옥사상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인도의 閻羅王과 중국의 泰山府君이 결합되어 중국 지옥사상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²⁰⁾ 梁代(502-557)에 僧旻과 寶唱이 펴낸 『經律異相』 권49, 50에 地獄部 상, 하 2편이 게재된 이후 지옥사상은 중국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다.²¹⁾ 아울러 西晉에서 남북조시대에 걸쳐서는 『正法念處經』(539년)을 비롯하여 『十八泥梨經』·『觀佛三昧海經』·『問地獄經』·『淨度三昧經』·『佛名經』 등 지옥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묘사를 담은 지옥관계 경전들이 다수 한역, 소개됨에 따라, 지옥사상은 한층 더 구체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와 함께 많은 說法師 또는 流行僧, 포교사들은 불교의 지옥세계를 육도윤회와 三世因果의 사상으로 일반대중들에게 이해시키고 지옥경전을 자세히 설하며 지옥사상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당시 교화승으로 인기가 높았던 益州 淨惠寺의 惠寬이 대중을 교화할 때 항상 지옥경을 주요경전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은 지옥사상이 서민사이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²²⁾ 唐代 이후에는 『預修十王生七經』의 편찬 이후 지장보살과 시왕이 중심이 된 지옥사상으로 발전하였으며, 송, 원, 명, 청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옥신앙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

19) 중국의 명부신앙에 대해서는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서왕도 연구』(일지사, 1996), pp. 26-35 및 金廷禧, 「中國 道教의 十王信仰과 圖像」, 『美術史學』VI(美術史學研究會 編, 1994), pp. 35-85 참고.

20) 長部和雄, 「唐代密教において閻羅大王と泰山府君」, 『道教研究』 第4冊, 吉岡義豊・M.スワミア 編修(邊境社, 1971), pp. 1-28.

21) 道端良秀, 「中國佛教に於ける地獄の恐怖」, 『印度學佛教學研究』 第8卷 第2號 (印度學佛教學會, 1960), p. 507.

22) 『續高僧傳』 卷20 釋惠寬條 (大正藏 50, pp. 600-601).

다. 특히 13세기를 전후해서는 도교에서 불교의 지옥신앙에 영향을 받아 『地府十王拔度儀』²³⁾라든가 『酆都滅罪經』과 같이 본격적으로 지옥시왕에 대해 다룬 책도 간행되었으며, 명대 이후 민간에서는 『玉歷寶鈔』를 중심으로 도교적인 지옥신앙이 성행하기도 하였다.²⁴⁾

이와 같은 지옥사상의 성행에 힘입어 중국에서는 唐代 이후 지옥회와 지옥관계 그림 및 조각들, 즉 지옥변상이 많이 제작되었다. 地獄變相이라 하면 좁은 의미로는 지옥의 모습을 형상화한 회화 또는 조각을 일컫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명부에서 亡者를 심판하는 시왕 및 지옥의 형벌장면을 묘사한 시왕도, 지하세계의 구주 지장보살을 그린 지장보살도, 지장보살과 시왕이 함께 묘사된 지장시왕도, 『예수시왕생칠경』의 변상도 등을 비롯하여 육도윤회도 중의 지옥도, 盧舍那法界人中圖의 지옥도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중국에서 지옥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북주의 靜藹(534-578)가 소년시절 滎陽의 한 사원에서 지옥도면을 보았다는 『續高僧傳』 靜藹條의 기록²⁵⁾을 들 수 있으며, 지옥회를 그린 최초의 畫工은 7세기 初唐의 張孝師, 완성은 8세기 玄宗代의 吳道玄라고 알려져 있듯이, 특히 당~송대에 이르는 시기에 다양한 지옥변상이 제작되었다. 『歷代名畫記』를 비롯하여 『圖畫見聞誌』, 『益州名畫錄』, 『唐朝名畫錄』, 『五代名畫補遺』, 『宣和畫譜』, 『寺塔記』 등의 문헌에는 당, 오대, 송대에 걸쳐 제작된 지옥회에 관한 기록이 다수 남아있어 당시 지옥회의 성행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당대에서 오대, 송에 이르는 시기에는 地獄變相을 비롯하여 閻羅王變, 業報差別變, 地藏十王圖, 十輪經變 등 다양한 종류의 지옥그림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張孝師와 吳道玄이 많은 지옥변을 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張孝師는 慈恩寺와 淨域寺, 淨法寺 등에 지옥변을 남겼으며, 그가 그린 많은 변상 가운데 특히 지옥변이 가히 妙品에 든다는 『唐朝名畫錄』의 기록²⁶⁾은 그가 지옥변에 일가견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吳道玄는 景公寺와 景雲寺, 福仙寺 등에 지옥변을 남겼는데, 후에 四川 출신의 화가 左全이 景公寺에 그려져 있던 吳道玄의 지옥변을 四川 大聖慈寺 多寶塔 아래에 모방하여 그렸다는 기록²⁷⁾은 그의 지옥변이 얼마나 유명하였는가를 잘 말해준다. 또, 吳道玄이 景公寺에 그린 지옥변은 그 모습이 괴이하여 도살자나 어부들이 그 罪報를 무서워하여 전업하는 자도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²⁸⁾ 상당히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쳤다고 생각된다. 약 100년 뒤에 이 그림을 본 段成式은,

23) 道藏 洞真部威儀類 『地府十王拔度儀』.

24) 『玉歷寶鈔』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地獄十王信仰에 관해서는 吉岡義豊, 「中國民間の地獄十王信仰について - 玉歷寶鈔を中心として」, 『道教の研究』, 吉岡義豊著作集 第1卷(五月書房, 1989), pp. 279-452 참고.

25) 『續高僧傳』 卷第23 釋靜藹條(大正藏 50, p. 625).

26) 朱景玄, 『唐朝名畫錄』 妙品下十人 張孝師條

27) 黃休復, 『益州名畫錄』 卷上 妙格中品十人 左全條

<표 1> 文獻에 보이는 唐~宋代의 地獄變相

| 圖像 | 畫家 | 所在地 | 典 據 | 內 容 | 비고 |
|----|-----|----------------|--|--|----|
| 1 | 張孝師 | 慈恩寺塔 東南中門 北 | 『歷代名畫記』卷3〈記兩京外州寺觀畫壁〉 ‘兩京寺觀等畫壁’ 慈恩寺條 | 慈恩寺…塔之東南中門外偏 張孝師畫 地獄變 已剝落 | 壁畫 |
| 2 | | 淨域寺 三階院 東壁 | 『歷代名畫記』卷3〈記兩京外州寺觀畫壁〉 ‘兩京寺觀等畫壁’ 淨域寺條 | 淨域寺…三階院東壁 張孝師畫地獄變 | 壁畫 |
| 3 | | 淨法寺 殿閣 뒤 | 『歷代名畫記』卷3〈記兩京外州寺觀畫壁〉 ‘兩京寺觀等畫壁’ 淨法寺條 | 淨法寺殿後 張孝師畫地獄變 | 壁畫 |
| 4 | | | 『唐朝名畫錄』妙品下十人 張孝師條 | 畫亦多變而能不失常途 惟鬼地獄尤爲 最妙 并可稱妙品 | |
| 5 | 吳道玄 | 景公寺 中門 동쪽 | 『歷代名畫記』卷3〈記兩京外州寺觀畫壁〉 ‘兩京寺觀等畫壁’ 景公寺條 | 景公寺東廊南門 東門南壁 畫行僧轉 目視人 中門之東 吳畫地獄并題 | 壁畫 |
| 6 | | | 『唐朝名畫錄』神品上一人 吳道玄條 | 慈恩寺塔前文殊普賢 西面應下降魔盤 龍等壁及景公寺地獄壁帝釋梵王龍神 | 壁畫 |
| 7 | | | 『寺塔記』卷上 | 常樂坊趙景公寺 隋開皇三年置 本曰 弘善寺 十八年改焉 南中三門裏東壁 上 吳道玄白畫地獄變 筆力勁怒 變狀 陰怪 睹之不覺毛戴 吳畫中得意處 | 壁畫 |
| 8 | | 景雲寺 | 『唐朝名畫錄』神品上一人 吳道玄條 | 又嘗聞景雲寺老僧傳云 吳生畫此寺地 獄變相時 京都屠沽漁罟之輩見之而懼 罪改業者往往有之 率皆修善 所畫并 爲後代之人規式也 | |
| 9 | | 福先寺 三階院 | 『歷代名畫記』卷3〈記兩京外州寺觀畫壁〉 ‘東都寺觀畫壁’ 福仙寺條 | 福仙寺三階院 吳畫地獄變 有病龍 最妙 | 壁畫 |
| 10 | 盧棱伽 | 化度寺 | 『歷代名畫記』卷3〈記兩京外州寺觀畫壁〉 ‘兩京寺觀等畫壁’ 化度寺條 | 化度寺 楊廷光楊仙喬畫本行經變 盧 棱伽畫地獄變 今殘兩頭少許耳 | 壁畫 |
| 11 | 陳靜眼 | 寶刹寺 | 『歷代名畫記』卷3〈記兩京外州寺觀畫壁〉 ‘兩京寺觀等畫壁’ 寶刹寺條 | 寶刹寺佛殿南楊契丹畫涅槃等變相 西 廊陳靜眼畫地獄變 | 壁畫 |
| 12 | 左 全 | 大聖慈寺 多寶塔 아래 | 『益州名畫錄』卷上 妙格中品十人 左全條 | 大聖慈寺中殿畫維摩變相…多寶塔下 仿長安景公寺吳道玄地獄變相 | 壁畫 |

28) 黃休復, 『益州名畫錄』卷上 妙格中品十人 左全條, “當時吳生畫此地獄像 都人咸觀 懼罪修善 兩市屠沽 經月不售”

| | 圖像 | 畫家 | 所在地 | 典據 | 內容 | 비고 |
|----|-------------|-----|---------------------|--|---|----|
| 13 | | 趙光輔 | 開元寺와 龍興寺 浴室院 | 『圖畫見聞志』卷第3 人物門趙光輔條 | 許昌開元龍興兩寺皆有畫壁 浴室院地藏變尤佳 有功德蕃馬等圖 傳於世 | 壁畫 |
| 14 | | 朱 繇 | 下京의 御府 | 『宣和畫譜』卷第3 道釋三 | 朱繇唐木長安人也 工畫道釋 妙得吳道玄筆法人未易優劣也...今御府所藏八十三...地獄變相一 | |
| 15 | 閻羅 王變 | 劉阿粗 | 敬愛寺 大殿內 西壁 | 『歷代名畫記』卷3〈記兩京外州寺觀畫壁〉 ‘東都寺觀等畫壁’ 敬愛寺條 | 敬愛寺...大殿內東西面壁畫維摩詰盧舍那 法華太子變 西壁四方佛繪十六觀及閻羅王變(劉阿粗畫) | 壁畫 |
| 16 | 業報差別變 | 吳道玄 | 敬愛寺 禪院 西回廊壁 | 『歷代名畫記』卷3〈記兩京外州寺觀畫壁〉 ‘東都寺觀畫壁’ 敬愛寺條 | 禪院內西廊壁畫(開元十年吳道子描) 地藏月藏經變及業報差別變(吳道子描 翟球成 罪福報應是雜手成 所以色損也) | 壁畫 |
| 17 | | 杜 措 | 大聖慈寺 六祖院 | 『益州名畫錄』卷上 妙格上品十五人 杜措條 | 今大聖慈寺六祖院傍地藏菩薩竹石山水一堵 | |
| 18 | 地藏 (十王)圖 | 張 圖 | | 『五代名畫補遺』人物門 第1 神品四人 張圖條 | 張圖 河南洛陽人 予又嘗於武宗元第觀圖所畫十王地藏一軸 綽有善護慈悲相 於今寶藏之 可列神品 | |
| 19 | | 王喬士 | | 『圖畫見聞志』卷第2 唐末二十七人 王喬士條 | 工畫佛道人物 尤愛畫地藏菩薩十王像 凡有百餘本 傳於世 | |
| 20 | | 富 玟 | 彌勒內院 | 『圖畫見聞志』卷第2 唐末二十七人 富玟條 | 工畫佛道 有彌勒內院圖白衣觀音文殊地藏慈恩法師等像 傳於世 | 壁畫 |
| 21 | 十輪變 | 武靜藏 | 敬愛寺 東禪院 (山亭院) | 『歷代名畫記』卷3〈記兩京外州寺觀畫壁〉 ‘兩京寺觀等畫壁’ 敬愛寺條 | 東禪院內十輪變(武靜藏描) | 壁畫 |
| 22 | | | | 『歷代名畫記』卷3〈記兩京外州寺觀畫壁〉 ‘兩京寺觀等畫壁’ 敬愛寺條 | 山亭院十輪經變華嚴經并武靜藏畫 | 壁畫 |
| 23 | | | | 『歷代名畫記』卷第9 唐朝上 武靜藏條 | 武靜藏 善畫鬼神 有氣韻 東都敬愛寺東山亭院地獄變畫甚妙 | 壁畫 |

* 이 표는 高田 修의 「地獄と地獄繪」, 『佛教美術史論考』(中央公論美術出版, 1969), p. 298의 第4表를 기본으로 하여 수정, 보완한 것임.

吳道玄의 白描 地獄變은 필력이 굳세고 노여움에 차 있으며 變狀이 陰慘하고 기괴하여 그것을 보면 머리카락이 솟구치니 吳道玄 그림 중 得意作이다.²⁹⁾

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송의 蘇東坡 또한 吳道玄의 지옥변을 보고,

吳道子是 畫聖인데 … 그의 지옥변상을 살펴 보니 造業의 원인을 살필 수는 없으나 죄를 받는 모습을 볼 수는 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능히 이 사이에는 一念의 淸淨함이 있으니 어찌 이치를 벗어날 수 없겠는가.³⁰⁾

라는 跋文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지옥변상은 당, 송대에 걸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밖에도 盧棲伽는 化度寺, 陳靜眼은 寶刹寺, 趙光輔는 開元寺 浴室院과 龍興寺 浴室院에 각각 지옥변을 그렸으며, 朱繇는 下京의 御府에 소장되어 있는 83폭의 그림 중 地獄變을 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劉阿祖가 洛陽 敬愛寺 大殿 내 서벽에 그린 閻羅王變, 吳道玄이 景愛寺 禪院 西回廊 벽에 그린 業報差別變, 杜措·張圖·王喬士·富玟 등이 그린 지장시왕도, 武靜藏이 敬愛寺 東禪院 佛殿 안에 그린 十輪經變 등도 모두 지옥과 관련된 지옥변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王喬士가 그린 지장시왕도는 백여 축이나 전해지고 있다는 기록³¹⁾은 당시 지옥변의 성행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말해주는 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서도 보듯이 당시 지옥변은 대부분 사원 입구의 문에 벽화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趙光輔가 그린 開元寺와 龍興寺의 지옥변은 浴室院의 벽화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인도의 불교사원에서 문입구에 오취생사륜도를 그리고, 욕실과 화실에 지옥변상을 그렸다는 『根本說一切有部毘那耶雜事』의 기록을 떠올리게 한다.³²⁾ 즉 중국에서도 고대 인도의 사원에서처럼 사원의 벽과 욕실에는 지옥변상을 그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곳에 그려졌던 지옥변상은 실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중생들이 지옥에서 여러 가지 벌을 받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지옥변상은 주로 벽화로 그려져 많은 신도들에게 인과응보와 업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교화의 기능을 하였을 것이며, 아울러 掛圖로도 그려져

29) 段成式, 『寺塔記』(大正藏 51, p. 1023) 卷上 〈常樂坊趙景公寺〉, “吳道玄白畫地獄變 筆力勁怒 變狀陰怪 觀之不覺毛戴 吳畫中得意處.”

30) 蘇東坡, 〈跋吳道子地獄變相〉(顏中其, 『蘇軾論文藝』, 北京出版社, 1985, p. 182), “道子畫聖也 … 觀地獄變相 不見其造業之因 而見其受罪之狀 悲哉悲哉 能於此間 一念淸淨 豈無脫理.”

31) 郭若虛, 『圖畫見聞誌』 卷第2 唐末二十七人 王喬士條

32) 앞주 11 참고.

그 설명문으로서의 變文과 함께 교화승의 자료가 되었다고 전하지만,³³⁾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현재 이른 시기의 지옥변상의 예 중 하나로는 10세기 杭州地域을 지배하였던 吳越의 왕실에서 조성한 慈雲嶺 磨崖佛龕 중의 地藏菩薩龕(圖 7)을 들 수 있다. 자운령 마애불감은 7尊龕을 중심으로 왼편의 地藏菩薩龕과 후대의 觀音菩薩龕(明代)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지장보살상의 위쪽 바위면에 六道輪廻圖(圖 7-1)가 새겨져 있다. 구름 위에 天, 人, 阿修羅, 地獄, 餓鬼, 畜生의 순서로 표현되었는데, 지옥과 축생, 수라는 한 구획, 인간, 아귀는



圖 7. 慈雲嶺 地藏菩薩龕, 942년, 중국 절강성 杭州.



圖 7-1. 地藏菩薩龕 상부 六道輪廻像, 942년, 중국 절강성 항주.

33) 那波, 「晚唐五代の佛教寺院の俗講の座に於いて - 變文の演出方式に就いて」, 『甲南大學甲南學部論集』 2, 註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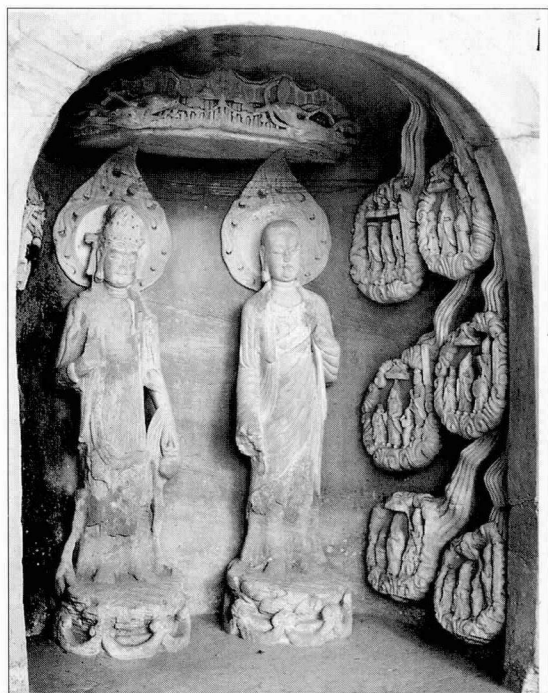


圖 8. 觀音地藏像 및 十王像, 北山石窟 253호, 오대, 중국 사천성 대족현.

호감(1001년)의 지장, 관음보살 및 시왕, 2司像과 安岳 圓覺洞 80號龕, 84號龕의 지옥변상은 오대에 조성된 것이다. 이 중 북산석굴 253호감(圖 8)은 중앙에 정병과 머드나무가지를 든 觀音菩薩과 比丘形의 地藏菩薩이 병립하고 있고 감실 좌우 벽면의 6조의 瑞雲 위에 시왕과 관관이 배치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은 큼직하게 표현되어 있고 시왕은 측벽에서 두 보살을 향하여 시립하는 소규모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어 본격적인 지옥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지장과 시왕이 결합된 지옥신앙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³⁵⁾

또한, 安岳 圓覺洞石窟의 지옥변상은 80호와 84호감에 걸쳐 조각되어 있는데, 두 굴의 개착

두 구씩 조각하여 모두 9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조는 吳越 왕실가족들의 死後 安樂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³⁴⁾ 본격적인 지옥변상이라기 보다는 靈駕薦度和 追善을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당말오대~송대에는 특히 사천지역의 불교, 도교계 석굴에 지옥변상도 다수 제작되었다. 이것은, 후술하겠지만, 고대부터 지옥신앙이 성행하였던 사천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불교계석굴과 도교계 석굴에는 中, 晚唐期에서 오대, 송대 및 명대에 걸쳐 제작된 몇 점의 지옥변상도가 남아있다.

불교계석굴 중 가장 시대가 이른 것은 資中縣 西岩 제89호굴의 光化年間(898-901)의 지장과 시왕조각이며, 北山 제253

34) 崔聖銀, 「杭州 慈雲嶺과 天龍寺 佛龕의 吳越彫刻에 대한 考察」, 『佛敎美術研究』 3.4合輯(東國大學校 佛敎美術文化財研究所, 1997. 2), pp. 120, 139.

35) 重慶大足石刻藝術博物館 篇, 『中國大足石刻』(重慶出版社·香港萬里書店, 1992), p. 18에서는 冠을 쓰고 머드나무가지, 정병을 든 상을 지장보살, 비구형의 인물을 道明尊者로 보고, 이 龕은 지장보살과 도명이 地府를 유람할 때 閻羅王을 비롯한 시왕이 와서 조회하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상 외에도 北山石窟에는 頭巾을 쓴 지장보살과 觀音·地藏立像이 다수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상을 굳이 지장과 도명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대족석굴의 두건지장상에 대해서는 金廷禧, 「韓·中 頭巾地藏의 比較考察-頭巾地藏을 中心으로」, 『講座 美術史』9號(韓國佛敎美術史學會, 1997. 9), pp. 63-103 참조.



圖 9. 地獄變相, 10세기경, 중국 사천성 안岳 圓覺洞石窟 84호감.

연대는 모두 오대 後蜀年間(934-965)경으로 추정된다. 84호감(圖 9)은 平頂長方形 감으로, 감 중앙에는 半跏坐하고 金剛寶座 위에 앉아있는 지장보살³⁶⁾을 조각하고 양측에는 각각 5명의 왕과 관관을 배치하였다. 지장보살은 두건을 쓰고 가사를 입고 있으며, 왼손에는 如意珠, 오른손에는 錫杖를 들고 있는데, 지장보살의 아래쪽에는 상, 하층에 걸쳐 지옥에서 獄卒이 망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모습과 業鏡 등이 얽은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상층의 오른쪽에는 裸身의 옥졸이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業鏡 안에 한 사람이 동물을 때려잡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지장보살의 양측에는 윗층에 6왕, 아래층에 4왕 등 시왕이 묘사되었는데, 왕들은 모두 관을 쓰고 관복을 입고있다. 시왕의 배치는 적혀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통상 중국의 지옥변이나 지장시왕도에서처럼 한쪽에는 제1왕부터 제5왕, 반대편에 제6왕~제10왕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왕의 아래에도 무엇인가 조각되어 있는 듯 하지만 풍화가 심하여 확실치 않다. 아마도 지옥의 징벌장면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³⁷⁾ 80호감의 지옥

36) 胡文和는 지장보살 아래 개 한 마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여 중앙의 상을 지장보살이 아니라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하는 효심깊은 目連으로 해석하고 있다.(胡文和, 『中國道教佛教石窟藝術』(四川人民出版社, 1994), pp. 303-304.)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還魂記〉의 기록에 의해 당, 송대의 지장보살도에는 지장보살 아래 웅크리고 있는 개처럼 생긴 사자를 한 마리 조각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여기에 표현된 짐승 또한 〈환혼기〉에 등장하는 사자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37) 胡文和, 앞책, pp. 303-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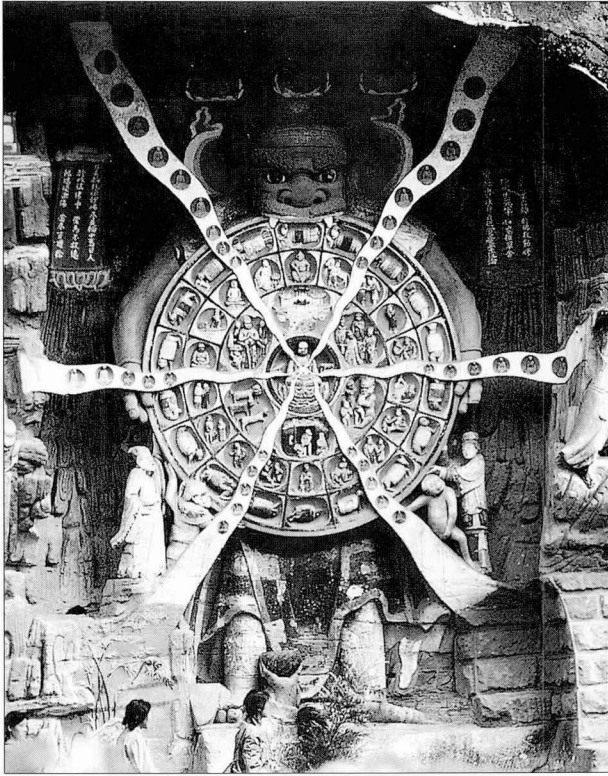


圖 10. 生死輪廻像, 남송, 중국 사천성 대족현 寶頂山石窟 3호감.

死輪廻像(圖 10)은 無常大鬼가 바퀴형의 생사륜을 감싸고 있고 아래에서 원승이가 바퀴를 돌리고 있는 형태로서, 경전에서 언급한 五趣生死輪의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다.³⁹⁾

도교계 석굴로는 대족 石門山石窟 제11호감의 東岳大生寶懺經變相(圖 11, 남송대)에 東岳大帝⁴⁰⁾, 淑明王后 등과 함께 75司 및 地獄諸圖가 조각되어 있다. 감의 정 가운데에는 동악대제와 숙명왕후⁴¹⁾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크게 조각되어 있으며, 상의 상부와 양측에는 文官모습의 75司가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감의 바깥쪽 벽 위에 지옥변상이 부조되어 있는데 안에는 산과 뱀, 鬼卒, 鐵圍城 등의 모습이 보이지만 풍화가 심하여 알아볼 수 없다.⁴²⁾ 역시 도교계 석굴로서 明 萬曆年間に 조성된 安岳 高升鄉 三仙洞에는 시왕과 지옥변상이 있어 눈길

변상은 84호감과 거의 유사하여 지장보살과 시왕, 지옥심판장면, 업경 등을 표현하였다.

송대의 지옥변상으로는 石篆山 제9호감과 본고에서 살펴볼 寶頂山 大佛灣 20호감의 지옥변상 및 大佛灣 3호의 六道輪廻像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石篆山 9호감은 紹聖3年(1096년)에 개착된 것으로, 중앙에는 引路幡과 錫杖을 들고 반가좌한 비구형의 지장보살을 배치하고 좌우 양벽에 帶冠執笏의 시왕 및 牛頭人身的 獄卒을 조각하였다.³⁸⁾ 이 감의 구조와 배치는 安岳 圓覺洞 80호감, 84호감과 유사하지만 다만 이 곳에는 지옥의 심판과 형벌장면없이 지장보살과 시왕만을 조각한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 大佛灣 3號의 生

38) 胡文和, 앞책, p. 306.

39) 大佛灣 3號의 六道輪廻像에 대해서는 金廷禧, 「生死輪廻圖考」, 『講座 美術史』 11號(韓國佛教美術史學會, 1998, 12), pp. 117-118 참조.

40) 東岳大帝는 東岳 泰山の 신으로 인간의 生死의 일을 맡고있다고 한다.

41) 黎方銀은 이 두 상을 栢靈夫婦像으로 비정하였다. 『大足石窟藝術』(重慶出版社, 1990), p. 193.

42) 劉長和·胡文和·李永翹 編著, 『大足石刻研究』(四川省社會科學出版社, 1985), p. 549.



圖 11. 東岳大生寶忏經變相, 남송, 중국 사천성 石門山石窟 제11호감.

을 끈다. 이곳에는 각각 독립된 작은 감 안에 상부에는 시왕이 권속을 거느리고 앉아 심판하는 장면, 하부에는 지옥의 형벌장면을 조각하였는데, 각 왕 아래에는 鑊湯地獄, 剝確地獄, 鋸解地獄, 轉輪地獄, 鐵磨地獄, 火床地獄 등이 사실적이면서도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다.

시왕의 기원과 시왕신앙이 도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인데, 특히 明代에는 이제까지 완전한 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도교의 시왕신앙이 『玉歷寶鈔』라는 책을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종합화되어 중국의 민중신앙으로 완전히 뿌리내리게 되었다. 『玉歷寶鈔』는 민간에게 널리 유통되고 있던 勸善書, 즉 善書의 일종으로, 저승에서 죽은이를 심판하는 시왕의 심판광경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외 앞뒤에 각지의 선사들의 잡다한 영험기와 勸世文類를 덧붙여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명대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 민중의 冥府觀 및 시왕신앙의 실태를 파악하는 최적의 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淸 乾隆년간에는 민간의 지옥사상의 중심서가 되었다. 현재 『옥력보초』의 판본은 모두 8종류가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모두 1806년~1940년의 140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발간된 것으로 볼 때 이 책이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널리 읽혀졌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끝부분에 도교적 지옥변상이 덧붙여져 있어 주목된다.⁴³⁾ 즉 幽冥教主地藏王菩薩, 望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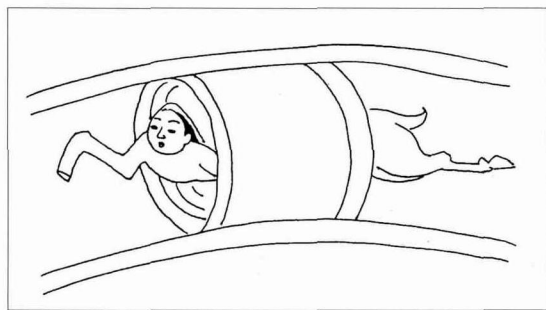


圖 12. 輪迴圖, 오대, 地獄變 부분, 중국 감숙성
榆林窟 19굴 前室甬道.

臺, 醜望臺, 司命竈神之位, 十王, 血汚池, 焦面鬼王, 酆都大帝, 觀音菩薩의 그림 등 불교와는 다른 도교만의 독특한 지옥신앙에 의거한 다양한 도상들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시왕의 도상은 대체적으로 불교의 도상을 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岳 三仙洞石窟의 시왕, 지옥변상은 바로 이와 같은 중국 명대의 도교적 지옥신앙을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직접적인 지옥변상 외에 간접적으로 지옥의 모습을 그린 것들이 있다. 안西 榆林窟 제19굴(五代)과 33굴(五代), 3굴(五代), 34굴(唐)에도 지옥변이 그려져 있는데, 19굴 前室甬道 地獄變(圖 12)에는 커다란 바퀴 안에 있는 원통으로 사람이 들어가 짐승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 짐승이 들어가 인간으로 나오기도 하는 등 윤회전생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33굴의 지옥변은 중앙의 지장보살 좌우에 보살형으로 묘사된 阿修羅道와 俗人의 모습으로 묘사된 人道를 각각 표현하였다. 34굴에는 主室甬道 天井에 오대 경의 地藏六趣圖의 흔적이 남아있다.

한편, 서역에서 발전한 盧舍那法界人中像은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동서교통이 활발해 짐에 따라 중국승려들에 의해 서역에서 河西回廊을 거쳐 중국으로 전래되어 6세기 초에는 洛陽에서, 이후 北齊와 隋, 唐代를 통하여 성행하였다.⁴⁴⁾ 돈황 428굴 불입상과 高寒寺 法界像, 프리머미술관소장 佛立像에서는 신체 안에 육도 전체를 표현하였으며, 운강20굴 본존불입상은 化佛, 대영박물관소장 盧舍那法界人中圖⁴⁵⁾는 동심문무늬와 化佛, 大住聖窟 盧舍那佛坐像과 대영박물관소장 報恩經變相圖 日月燈明佛, 기메미술관소장 불입상은 육도 중 일부를 묘사하였다.⁴⁶⁾ 돈황 428굴의 盧舍那法界人中圖(圖 13, 13-1)는 육도가 모두 묘사된 경우로서, 부처의 법의와 법의 아래의 내의에는 갖가지 형상, 즉 천상계·인간계·아수라계·축생계·아귀계·지옥계 등 중생이 윤회전생하는 6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눈길을 끄는데, 그중 지옥도는 날카로운 말뚝 사이로 두 사자에 의해 지옥으로 끌려가는 망령들과 망령들 사이로 날카로운 칼들이 솟아있어 아마도 劍樹地獄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밖에 高寒寺 法界像

43) 金廷禧, 「中國 道教의 十王信仰과 圖像-玉歷寶鈔를 中心으로」, pp. 35-85.

44) 吉村 愔, 앞논문, pp. 21-22.

45) 파하드 백 야일라키출토로 6세기경의 작품이다. 폭 18.5cm.

46) 노사나법계인중상 내에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는 吉村 愔, 앞논문, p. 15의 표 참조.



圖 13. 盧舍那法界人中圖, 북주, 중국 감숙성 돈황 428굴 남벽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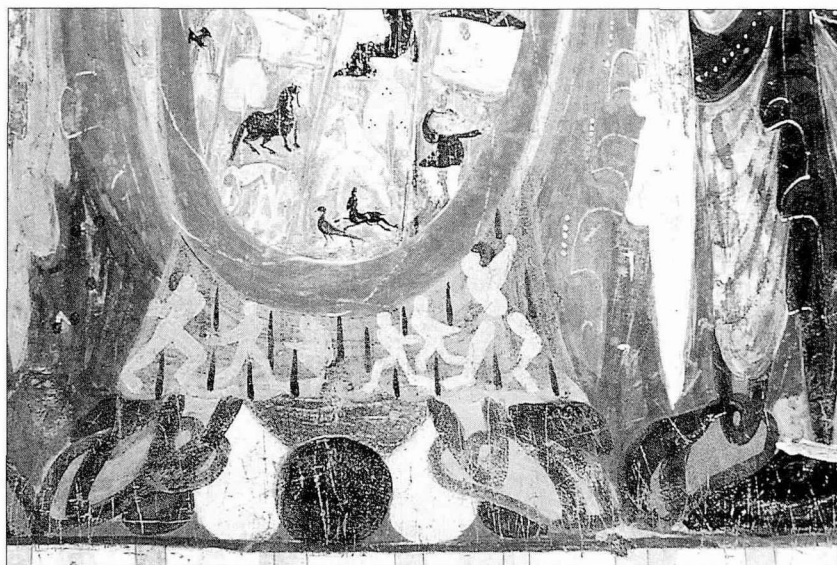


圖 13-1. 부분도.

(北齊)과 프리어미술관 소장 불입상(隋代)에도 불상의 앞뒷면에 가득 천상계에서 지옥계에 이르는 육도상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의 불교설화들이 새겨져 있다.

이상에서 보면 쿠차, 카라샤르 등 서역에서 먼저 부처의 신체 중에 佛殿, 佛菩薩, 人物, 圓輪 등을 그린 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둔황과 양주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인중상은 5세기 초 蘇州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진 후 5세기 전반에 동서교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서역과 중국 승려들에 의해 河西回廊을 거쳐서 중국으로 전래되었다고 보기도 하는데,⁴⁷⁾ 현존하는 인중상의 상한이 북위, 하한이 당말오대인 점으로 볼 때 인중상은 북위 경 조성되기 시작하여 북제에서 북주, 수, 당으로 성행하였던 것 같다.

이외에 둔황에서 발견된 오대~북송대의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와 지장보살(시왕)도 중에도 六道輪廻圖의 지옥도가 삽입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시왕경변상도(圖 14)는 대부분 10세기경에 제작된 것들로서, 앞에는 시왕의 심판광경을 차례차례 묘사한 후 열번째 五道轉輪大王圖에 심판을 받은 亡者들이 태어날 육도의 모습을 그려넣었는데, 이 중 지옥은 화탕지옥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 보통이다. 또 지장시왕도와 지장보살도에도 지장보살의 광배 좌우에서 뻗어나온



圖 14. 『預修十王生七經』變相圖, 10세기, 둔황출토, 영국 대영박물관소장.

47) 吉村 伶, 앞논문, p. 22.



圖 15. 地藏十王圖, 복숭, 프랑스 기메박물관소장.

광선 위에 六道의 모습을 배치하였는데(圖 15), 시왕경 변상도와 마찬가지로 확당지옥의 모습을 그려넣었다.⁴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에서는 이미 육조 시대부터 지옥변상이 성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사원의 벽화로, 또 한편으로는 석굴사원의 조각으로 조성되어 많은 신도들에게 因果應報, 業의 교리를 알기쉽게 알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Ⅲ. 大足石窟 地獄變相의 造成背景

이 장에서는 寶頂山石窟의 지옥변상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석굴이 위치한 사천성의 불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사적에 의하면 사천지역에 불교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前秦시대의 승려 涉公(?-380)⁴⁹⁾에 의해서이다.⁵⁰⁾ 섭공은 서역인으로 建元 12年

(376년) 前秦王 苻堅(357-385)에 의하여 장안으로 초빙되어 왔는데, 매번 신이함을 나타내어 苻堅의 존경과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건원 16년(380) 병이 없이 죽었는데 부견이 매우 슬퍼하며 7일 후 관을 열어보았으나 시체는 간 데 없고 염했던 천만 남아있었다고 한다.⁵¹⁾

48) 金廷禧, 『生死輪廻圖考』, pp. 120-125.

49) 梁 慧皎가 편찬한 『高僧傳』에서는 涉公을 서역출신이라 하였으나(『高僧傳』卷第十 神異 下 涉公傳, 大正藏 50, p. 389), 元의 念常은 『佛教歷代通載』에서 蜀人이라 밝히고 있다(『佛教歷代通載』卷第六 釋涉公條, 大正藏 49 p. 522).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佛教歷代通載』는 『高僧傳』의 내용을 약술한 것이기 때문에 서역인이 맞지 않나 생각된다.

50) 溫玉成 원저·裴珍達 편역, 『中國石窟과 文化藝術』(上)(景仁文化社, 1992), p. 188. 이하 사천지역의 불교에 관한 부분은 위책, pp. 188-189를 참고하였다.

51) 梁 慧皎 贊, 『高僧傳』卷第十 神異 下 涉公傳(大正藏 50, p. 389), “涉公者 西域人也 虛靖服氣不食五穀 日能行五百里 言未然之事 驗若指掌 以苻堅建元十二年至長安 能以秘呪呪下神龍 每旱堅常請之呪龍 俄而龍下鉢中 天輒大雨 堅及君臣親就鉢中觀之 咸歎其異 堅奉爲國神 士庶皆投身接足 自是無復炎旱之憂 至十六年十二月無疾而化 堅哭之甚慳 卒後七日堅以其神異 試開棺視之 不見尸骸所在 唯有殮被存焉 至十七年 自正月不雨至于六月 堅減膳撤懸以迎和氣至七月降雨 堅請中書朱丹 丹曰涉公若在朕豈憊心於雲漢若是哉 此公其大聖乎 丹曰斯術幽遠 實亦曠古之奇也”

5호 16국시대에는 范林, 三賢寺 僧生, 石室山 法緒, 廣漢 閩興寺 賢護(?-401) 등 고승들이 대부분 하서(涼州, 高昌, 西域)로부터 와서 禪定, 誦經을 업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활동했던 지역은 成都 및 성도의 북쪽 閩中, 郫縣, 廣漢 등지에 집중되어 있다. 동진의 孝武帝와 安帝 때에는 僧恭을 益州 僧正에 임명하였으며, 4세기경에는 유명한 고승 道安(314-385)의 제자 曇翼(313-394)과 慧持(337-412)가 사천으로 들어와 불법을 크게 전파하기도 하였다.

劉宋(420-479), 南齊(479-502), 肖梁(502-557), 北周(556-581)를 거치면서 사천의 불교는 큰 발전을 보았다. 즉 劉宋의 東海王 懷素, 益州刺史 劉思考, 肖梁 西昌侯 肖淵藻, 武陵王 肖妃, 北周 譙王 宇文儉 등이 불교를 지지하였으며, 중국 불교의 각 학파 역시 이때 사천 지역으로 전입되었다. 대규모의 行像 法事가 늘어오 유송시기에 이미 성도에서 행하여졌으며 慧遠의 제자 道汪(?-465) 또한 절을 창건하고 상을 조각하여 사천에서 佛法이 더욱 보급되었다고 한다.

만당~북송초기에는 사천의 중심지인 成都가 전국 최대의 각관 인쇄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북송 趙匡胤이 성도에 사신을 보내 5천 47권의 대장경의 刻印을 감독케 하는 등 불교문화가 발달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사천에서는 역대로 많은 종교가 역대 정권의 통치자와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는데, 후한대 張陵이 창시한 天師道는 그 아들 張衡, 손자 張魯 3대가 모두 종교로서 백성을 다스렸으며,⁵²⁾ 오대에는 前蜀王 王建이 密宗大師 柳本尊⁵³⁾ 등을 공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성당대 이후에 사천조각이 발전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만당 오대에서 송초에 걸쳐 밀교는 전란 중에서도 다시 흥기하여, 특히 오대에 사천은 靈州, 隴坻와 함께 밀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천 지역에 밀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長安 靑龍寺 惠果의 제자 惟上에 의해서인데 그 사적이 자세히 없다. 만당때에는 유명한 사천 資聖寺의 悟達國師 知玄(811-883)이 일찍이 서역승려 滿月로부터 밀교를 배우고, 아울러 청하

52) 天師道는 五斗米道라고도 하는데 後漢의 張陵에 의하여 蜀(사천성) 지역에서 창시된 도교의 유파로서, 제3대 張魯 때에는 天師道教徒의 종교왕국을 蜀 지역에 형성하고, 30년 가까이 지배하였다. 후한말에 이르러 魏의 曹操에 의해서 토벌된 후 천사도 교도 數萬戶가 華北의 長安과 그 주변으로 강제이주되었다. 그 이후에는 北地와 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小林正美, 『六朝道教史研究』(1990, 創文社), p. 4 및 pp. 189-190.

53) 柳本尊(855-942)은 俗名은 柳居直으로, 855년 사천 嘉州에서 태어나 당말 오대때 사천 밀교의 祖師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瑜伽本尊教를 계승하여 漢州 彌濛에 中心道場을 건립하고 사천에 밀교를 흥성케 하여 唐瑜伽教主總持王으로 칭해졌었다. 그의 사후 217년후 대족에서 태어난 趙智鳳은 柳本尊의 뜻을 이어 寶頂山에 대규모의 밀교도량을 건설하였다. 柳本尊의 행적에 대해서는 大足縣 寶頂山石窟 小佛灣에 있는 《唐柳本尊傳》碑(宋刻)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陳明光, 「宋刻《唐柳本尊傳》碑校補」, 『大足石刻研究文集(重慶出版社, 1993), pp. 75-76.

여 『陀羅尼集』 4권과 『佛爲毘戔陀天子說尊勝經』 1권을 번역하게 하였다. 그는 당 武宗의 폐불 때에 사천으로 돌아왔는데 당 僖宗이 난을 피하여 西蜀으로 왔을 때(881년) 부름을 받았으며, 그의 제자인 僧徹 法孫 覺輝, 法曾孫인 光業이 그의 업을 계승하여 顯密이 널리 전해졌다. 이 시기 영향력이 가장 컸던 승려는 鳳翔府 道賢(?-936)으로, 그는 『孔雀王經』과 『瑜伽灌頂法』을 중심으로 밀교를 전교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송 초에는 蜀僧 守眞(昭信大師, 894-971)이 밀교를 널리 전하였는데, 그는 오로지 『文殊五髻教法』과 『西方無量壽教法』을 수행하였다고 한다.⁵⁴⁾

이와함께 사천성은 송대에 이르러 佛教正宗儀軌의 제공처로, 또 시왕신앙의 본거지로 알려졌다.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남북조시대 益州(사천) 淨惠寺의 승려 惠寬이 대중을 교화할 때 항상 地獄經을 주요경전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을 비롯하여⁵⁵⁾ 시왕신앙의 소의경전인 『예수시왕생칠경』과 『발심인연시왕경』의 저자로 알려진 藏川이 바로 成都府 大聖慈寺의 승려였으며, 十王圖形이 果老仙人(張果老)⁵⁶⁾에서 비롯되었다는 故事⁵⁷⁾가 바로 蜀地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해준다.⁵⁸⁾ 물론 張果老가 시왕도를 그렸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十王圖形이 시작되었다는 『釋門正統』의 기록은 신빙성이 없지만, 시왕신앙은 물론 經文과 圖像이 모두 축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축지가 시왕신앙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大足石窟의 地獄變相와 六道輪廻像, 地藏菩薩像 등은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천은 이와같은 불교적 배경 외에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남서부에 위치하여 雲南의 南詔國(738-902) 및 티벳과의 경계를 이루는 당대의 요충지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물론 秦嶺山脈 및 大巴山과 같은 높고 험준한 산맥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격절된 盆地이기 때문에 중원지역을 비롯한 인접지역과의 교통이 불편하여 일찍부터 중원문명과 다른 독특한 문화를 이루기도 하였다.⁵⁹⁾ 그러나, 漢武帝 때 巴蜀의 문화는 이미 중원의 습속에 충분히 동화되었으며⁶⁰⁾ 교통은 廣元縣을 통해서 장안과 곧장 연결

54) 溫玉成, 앞책, p. 202.

55) 앞주 22 참조.

56) 果老仙人은 盛唐 玄宗때의 道士로 『陰符經玄解』를 저술한 張果를 지칭하는데, 그는 八仙 중의 하나로 山西省 永濟縣 東南에 위치한 抗州 中條山에 은거하며 長生秘術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다(馬書田, 『華夏諸神』(北京:燕山出版社, 1989), pp. 172-177). 그림으로 묘사될 때는 나귀를 거꾸로 탄 노인이 漁鼓筒板을 들고 박쥐를 대동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57) 宗鑑集, 『釋門正統』卷4 利生志(卍續藏 75, p. 304), “圖形於果老仙人(唐張果老幘畫)起教於道明和尚”.

58) 石守謙, 「有關地獄十王圖與其東傳日本的幾個問題」, 『歷史言語研究輯刊』第65本 第31分(臺北:中央研究院 歷史言語研究所), p. 583.

59) 金秉駿, 『中國 古代 地域文化와 郡縣支配』(一潮閣, 1997), p. 6.

되어 玄宗(712-756)이 8세기 중엽 安祿山의 亂을 피하여 이곳으로 도피했던 것은 물론, 9세기 말에도 僖宗(874-888)이 黃巢의 亂을 피하여 5년간이나 이곳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미루어 중원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益州名畫錄』에 의하면 宣宗의 復佛期인 大中年間(847-860)에서 僖宗의 乾符年間(874-879)에 이르기까지 사천의 聖壽寺, 聖興寺, 淨衆寺, 中興寺 등에는 范瓊, 陳皓, 彭堅 등 3인의 화가가 많은 벽화를 그렸다고 전하며,⁶¹⁾ 특히 중원의 고승들과 문인들은 安史의 亂과 黃巢의 난, 오대10국의 전쟁 등을 피하여, 또 송, 요, 금의 오랜 전쟁을 치르며 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蜀에는 名畫가 많았다고 한다.⁶²⁾ 玄宗이 입축했을 때(756.7~757.10)에는 황제를 수행하였던 예술가로부터 중앙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양식이 사천에 전해져 사천의 예술에 영향을 주었으며, 僖宗과 昭宗(889-903)의 入蜀 때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사천으로 와서 사천은 남북문화가 모이는 中外문화교류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⁶³⁾ 『익주명화록』과 『圖畫見聞誌』에 의하면 당시 吳道玄, 盧楞伽, 幸澄, 趙公佑, 范瑋, 陳皓, 彭堅, 張南本, 刁光胤, 孫位 등을 비롯한 50여명의 황실화가들이 촉으로 와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장안의 회화전통을 가져와 북방의 예술과 사천의 고유문화예술을 융합하여 독특한 사천미술을 탄생시켰다. 이밖에 당시 황실을 따라온 50~60 정도의 명문귀족들이 가져온 소장품 역시 성도의 미술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⁴⁾

한편, 현재 사천의 석굴에 남아있는 조각들을 중심으로 볼 때 唐 後期에는 淨土變, 觀經變을 비롯하여 千手觀音, 毘沙門天 등이 융성하게 제작되었고 晚唐期에는 如意輪觀音 및 歡喜王菩薩, 鬼子母, 不空羼索觀音, 地藏十王, 高僧像 등이 출현하였으며, 이밖에 阿彌陀佛·觀音·地藏·觀音地藏竝立像·藥師佛과 10佛, 地藏菩薩, 阿彌陀佛 등을 함께 묘사한 도상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당말에도 계속되어 여전히 千手觀音·救苦觀音·地藏菩薩·地藏十王·16羅漢 등이 주요한 주제로서 다루어졌다. 이어 송대에는 오대에 성행한 16羅漢·地藏

60) 金秉駿, 앞책, p. 9.

61) 黃休復, 『益州名畫錄』 神品 范瓊條

62) 黃休復, 『益州名畫錄』 序, “蓋益都多名畫 富視他郡 謂唐二帝播越及諸侯作鎮之秋 是時畫藝之杰者游從而來 故其標格模楷無處不有 聖朝伐蜀之日 若升堂邑 彼廨宇寺觀前輩名畫纖悉無土己者 迨淳化甲午歲 盜發二川焚劫略盡 則牆壁之繪甚乎剝廬 家秘之寶散如決水 今可贖者十二三焉”.

63) 黃休復, 『益州名畫錄』 卷上 妙格中品十人 趙德玄條, “蜀因二帝駐足畢 昭宗遷行 自京入蜀者 將到圖書名畫 散落人間 固亦多矣 杜天師(杜光庭)在蜀集道經三千卷 儒書八千卷 德玄(趙德玄)將到梁 隋及唐百本畫 或自模拓 或是粉本 或是墨迹 無非秘府散逸者 本相傳在蜀 信後學之幸也”

64) Wai-kam Ho, *Aspects of Chinese Painting from 1100 to 1350, Eight Dynasties of Chinese Painting : The Collections of the Nelson Gallery-Art Museum, Kansas City and the Cleveland Museum of Art*, p. x x xi.

十王·藥師像 등이 계속 조성되었으며 密宗, 華嚴宗, 禪宗의 소재가 유행하였다.⁶⁵⁾ 특히 安史의 난에서 오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南詔, 티벳, 둔황 등지와 사천 서남일대는 문화교류가 빈번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사천 서남지구 석굴의 내용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⁶⁶⁾, 觀經變과 千手觀音, 毘沙門天王, 藥師變 등이 많이 조성된다든가 淨土宗과 密敎의 소재가 출현하는 것도 사천과 둔황석굴이 서로 동일하여 사천의 석굴에는 감숙지구 석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였다.⁶⁷⁾

IV. 寶頂山石窟 地獄變相의 圖像

1. 大足石窟 概要

大足石窟은 중국 사천성 중경시에서 1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사천성은 秦漢 이래 농업이 발달하여 먹, 철, 소금, 차, 비단이 많이 생산되었으며, 당~남송중기, 말에 이르는 시기에는 경제가 발달하였으며, 長安의 상인들과 승려들이 巴蜀⁶⁸⁾의 길을 따라 양자강을 따라 江浙에 이르고 바다로 나가 혹은 雲南, 貴州를 경유하여 인도, 버마, 월남 등에 이르러 외국상인과 승려와 학생들이 왕왕 이 길을 통해 장안으로 들어오곤 하던 교통의 요지에 해당되는 곳이었다.⁶⁹⁾

현재 사천의 서, 북, 중부에는 성당~남송의 석굴이 분포하고 있으며 유명한 곳이 200여곳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大足縣은 석굴이 가장 집중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대족현은 東周 때는 巴國의 屬地, 秦代에는 巴郡에 속하였으며⁷⁰⁾ 한대에는 益州郡 犍江縣, 수대에는 涪陵郡 赤水縣과 資陽郡 隆康縣의 속지였으며, 唐初에는 山南西道 合主 銅梁縣과 劍南道 普州 普康縣의 속지에 속하였다. 당 肅宗 干元 때(758~759) 이르러 처음 대족현을 설치하고 昌州에 속하게 한 후 대족에는 많은 석굴사원들이 조성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만당~양송시대의 것이 가

65) 中國美術全集 彫塑篇 12, 『四川石窟彫塑』(北京:人民美術出版社, 1988), pp. 12-17.

66) 초기 사천지역과 서역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山名伸生, 「吐欲渾と成都の佛像」, 『佛教藝術』 218호(1995.1), pp. 12-13 참조.

67) 中國美術全集 彫塑篇 12, 『四川石窟彫塑』, pp. 27-28.

68) 巴蜀은 현재 중국의 사천성의 巴(重慶)와 蜀(成都)를 중심으로 한 四川盆地를 지칭한다.

69) 郭相穎, 「大足石刻藝術」, 『大足石刻研究文集』(重慶大足石刻藝術博物館·大足縣文物保管所 編, 重慶出版社, 1992), p. 2.

70) 기원전 316년 秦은 사천지역의 蜀國과 巴國을 점령하여 사천의 동부지역에 巴郡을 두었다. 『華陽國志』 卷3 蜀志(金秉駿, 앞책, p. 13 주1 재인용)

장 뛰어난 조각솜씨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大足石窟의 조각은 北山, 寶頂山, 南山, 石篆山, 石門山, 妙高山, 舒成岩, 佛安橋, 玉灘, 七拱橋 등 10여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北山과 寶頂山, 石篆山の 조각이 대표적이다.

大足石窟이 처음 개창된 시기는 北山 佛灣의 〈衛君靖碑〉⁷¹⁾에 의하여 당 景福 元年(892)으로 알려져 왔지만, 1987년 大足縣文物普查隊가 발견한 尖山子石窟 중에 '永徽'(650~655), '乾封元年'(666) 등의 연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初唐 경에 처음 석굴이 개창된 것으로 추정된다.⁷²⁾ 그러나 初唐에서 晚唐에 이르는 시기에는 비록 대족에 석굴이 개착되기는 하였지만 지금처럼 대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 景福 元年(892) 이후 대규모로 석굴이 조성되었는데, 특히 남송대의 名僧 趙智鳳은 1179년~1249년에 寶頂山에 13곳의 대규모 密宗道場을 건설하였다. 大足石窟의 조각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당 永徽年間(650~655)에 조성된 寶山 鄉尖山子磨岩 조상이며, 9세기~13세기에 造像이 성행하였다. 또한 조각의 내용은 儒, 佛, 道 3교의 조상이 모두 존재하는데, 그중 인물상이 6만구에 달하며, 불교소재의 조상이 80%, 도교관계 조상이 12%, 3教題材 조상이 5%이며, 나머지는 儒家와 역사인물상이 차지하고 있다.⁷³⁾

그 중에서 본고에서 살펴볼 지옥변상이 새겨져 있는 寶頂山石窟은 대족현 동북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석굴사원으로서, 이곳은 남송의 승려 趙智鳳이 淳熙 6年~淳祐9年(1179~1249) 사이의 수십년간에 걸쳐 조성한 밀교도량이다. 조지봉은 대족 寶頂山 聖壽寺의 승려로 법명은 智宗이며 세칭 趙本尊이라고도 하는데, 90평생 밀교의 진흥을 위하여 일했던 인물로서 1159년 대족현 米糧里에서 출생하여 1249년 사망하였다.⁷⁴⁾ 그는 瑜伽密敎의 승려로서 寶頂山에서 사천 瑜伽柳本尊敎를 증진시키고, 六代祖師傳密印을 칭하기도 하였다. 이에 寶頂山은 성도 유가파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寶頂山의 조각은 密敎尊像에만 한정되지 않고 華嚴, 淨土, 禪宗 등 다양한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조각은 大日如來를 중심으로 菩薩, 天女 등을 주위에 배치한 만다라적 구성을 보여준다. 寶頂山의 조각은 大, 小佛灣 도량이 중심이 되며, 전체길이는 500m, 높이 10m에 이른다. 이 중 大佛灣은 廣大寶樓閣이라고도 하며, 깊은 계곡 말굽형의 灣 속에 위치하고 있다. 남송말기에 몽고군이 사천을 공격하여 조각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지하기에 이

71) 衛君靖은 京兆人으로 唐末에 靜南軍節度使를 지냈는데 892년 北山에 처음으로 굴을 개착하고 불상을 조성하였다.

72) 黎方銀, 『大足石窟藝術』(重慶出版社, 1990), p. 4.

73) 郭相穎, 앞글, pp. 3-4.

74) 陳明光, 「寶頂山石窟創建者-趙智鳳事略」, 『大足石刻研究文集』, p. 185.

르렀는데, 이 때문에 대불만의 10大明王像은 거의 반정도 밖에는 완성되지 못하였다. 小佛灣은 大寶樓閣이라고 하며 밀교승들이 밀법을 수행하는 장소로, 대불만 서남쪽의 經壽寺 내에 있다.

大佛灣의 造像主題는 대부분 오대, 북송의 분위기를 계승하고 있는데 千手千眼觀音, 涅槃變, 孔雀明王, 毘盧道場, 無量壽變, 十大明王, 圓覺 및 道教造像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장면이 더욱 넓어졌고 세부적인 묘사가 더욱 정교하여 졌으며 조상 또한 더욱 세속화되었다. 대부분의 주제는 효행관념을 위주로 하는 父母恩重經變相⁷⁵⁾, 大方便佛報恩經變相이며, 또 선종적인 縛心猿과 牧牛圖도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시대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⁷⁶⁾

2. 寶頂山石窟 地獄變相의 構造와 內容

寶頂山石窟의 지옥변상은 大佛灣 20號龕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조각된 지옥변상(圖 3)은 중국의 석굴 가운데 규모도 가장 크고 내용도 풍부하며 보존도 매우 좋은 가장 생동감있는 지옥변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 위치는 六耗圖 우측벽 위, 觀經變相變의 향좌측벽에 새겨져 있는데, 전체높이 13.8m, 넓이 19.4m에 달하는 거대한 조각으로 모두 4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단과 2단에는 여러 가지 지옥의 모습이 새겨져 있으며, 제3단과 4단에 걸쳐 중앙에는 寶冠을 쓴 地藏菩薩이 걸가부좌하고 있고 제3단에는 시왕이 判官, 童子 등과 함께 재판하는 모습이, 그리고 제4단에는 시왕의 本地佛에 해당하는 十佛이 조각되어 있어 그야말로 불교의 명부신앙을 한눈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圖 16). 4단에 걸쳐 전개되어 있는 지옥변상을 간단하게 도해하면 <표 2>와 같은데, 이하 각 층의 지옥장면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제일 윗층인 제4단에서부터 거꾸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제4단 : 제일 위부분으로, 主尊 地藏菩薩의 어깨 위 10개의 작은 원형 감 안에 좌우 각 5구씩 10佛이 조각되어 있다. 각 불상의 머리에는 螺髻가 표현되어 있으며, 가사를 입고 연화좌 위에 걸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인데, 얼굴은 모두 유사하게 표현되었으며 각 상 모두 수인을 걸하고 있다. 이 十軀의 불상은 아마도 시왕의 本地佛⁷⁷⁾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75) 溫玉成은 부모은중경변상을 父母十恩德圖라고 하였다. 溫玉成 원저·裴珍達 편역, 앞책, p. 209.

76) 溫玉成, 앞책·裴珍達 편역, p. 207.

77) 本地佛이라는 것은 일본 고래의 신의 本身(本地)은 불교의 신이라는 것, 즉 일본의 신은 本地인 불교의 신이 「일본의 신」이라는 모습으로 출현(垂迹)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鎌倉時代에 이르러 성립되었다. 關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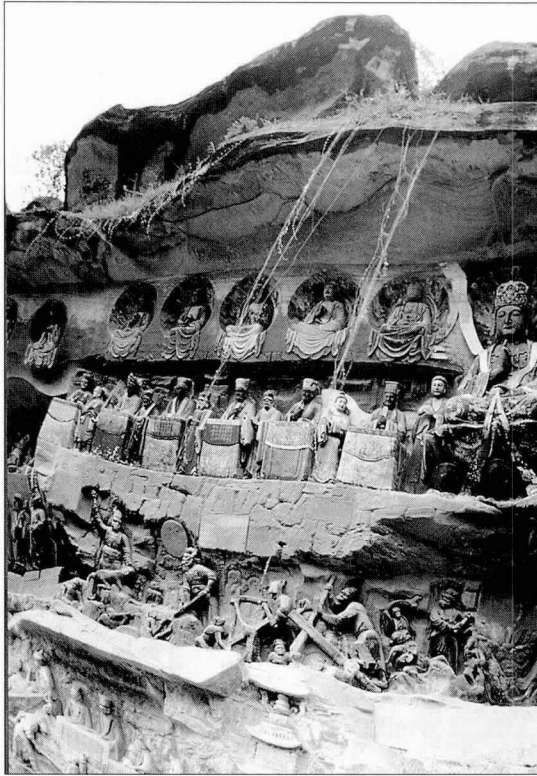


圖 16. 地獄變相 부분, 중국 사천성 대족현 보정산석굴 20호감.

시왕 경전 중의 하나인 『發心因緣十王經』에서는 각 대왕의 본지불에 대하여 第1 秦廣王은 不動明王, 第2 初江王은 釋迦如來, 第3 宋帝王은 文殊舍利菩薩, 第4 五官王은 普賢菩薩, 第5 閻羅王은 地藏菩薩, 第6 變成王은 彌勒菩薩, 第7 泰山王은 藥師如來, 第8 平等王은 觀世音菩薩, 第9 都市王은 阿閼如來, 第10 五道轉輪大王은 阿彌陀如來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10구의 불상은 향우측에서부터 不動明王, 釋迦如來, 文殊舍利菩薩, 普賢菩薩, 地藏菩薩, 彌勒菩薩, 藥師如來, 觀世音菩薩, 阿閼如來, 阿彌陀如來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10불 중에는 如來도 있고 菩薩도 있지만, 여기에 표현된 10불의 모습은 모두 여래형으로 표현되었다.

<표 2> 大足石窟 地獄變相 배치도

| | | | | | | | | | | | | | |
|----------|----------|----------|----------|----------|----------|----------|----------|----------|----------|----------|----------|----------|-------|
| 十 佛 | | | | | | 地 藏 | 十 佛 | | | | | | … 제4단 |
| 速報 司官 | 轉輪 大王 | 都市 大王 | 平等 大王 | 泰山 大王 | 變成 大王 | | 閻羅 大王 | 五官 大王 | 宋帝 大王 | 初江 大王 | 秦廣 大王 | 現報 司官 | … 제3단 |
| 黑闇 地獄 | 鐵床 地獄 | 鋸解 地獄 | 判碓 地獄 | 毒蛇 地獄 | 拔舌 地獄 | 劍水 地獄 | 寒水 地獄 | 鑊湯 地獄 | 刀山 地獄 | | | … 제2단 | |
| 糞池 地獄 | 鑿戟 地獄 | 鐵輪 地獄 | 鑊湯 地獄 | 舍利塔 | 刀船 地獄 | 餓鬼 地獄 | 阿鼻 地獄 | 截膝 地獄 | | | … 제1단 | | |

正之, 『垂迹畫』, 日本의 美術 3(至文堂, 1989), p. 17.

2) 제3단 : 중앙의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10왕 및 판관 등을 배치하였다. 지장보살은 寶冠을 쓰고 結跏趺坐하였으며, 오른손은 가슴 앞에서 手印을 결하고 왼손에는 如意珠를 들고 있는데, 지장보살의 손 안에 든 보주에서 六道의 빛이 뻗어져 나와 위의 양쪽 龕을 뚫고있으며, 중간의 시왕조각과 아래 지옥까지 달하고 있다. 지장보살의 형상은 여러 경전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승려형의 머리에 오른손에는 錫杖, 왼손에는 寶珠를 든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와 같이 보관을 쓴 지장보살의 모습은 密敎의 胎藏界曼荼羅 地藏院에서 볼 수 있다. 密敎 경전인 『八大菩薩曼荼羅經』에는 지장보살의 형상에 대하여

如來 앞에서 지장보살을 상상해 본다. 머리에는 寶冠을 쓰고 얼굴은 溫和하고 寂靜하며 일체의 有情을 불쌍히 여긴다.⁷⁸⁾

라고 말하고 있고, 『大毘盧遮那成佛經疏』에서는

이(地藏) 보살은 손에 연꽃을 쥐고 있으며, 여러 瓔珞으로서 그 몸을 장식한다.⁷⁹⁾

라는 등 다른 보살들과 마찬가지로 寶冠을 쓰고 있고 瓔珞을 걸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밀교에서 지장보살이 관을 쓴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마도 大日如來를 중심으로 하는 보살의 속성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寶頂山石窟 역시 밀교도량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보관을 쓰고 영락을 장식한 지장보살상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지장보살의 좌우로는 각각 通天冠 또는 冕旒冠을 쓴 각 5명의 왕들이 양손에 笏 또는 審議案을 들고 앉아있으며(圖 17) 시왕의 양 가장자리에는 兩司(現報使, 速報使)가 앉아있다(圖 18). 시왕은 향우측에서 부터 제1왕~제10왕의 순서로 조각되어 있으며, 시왕과 錄司 좌우에는 각 왕의 명칭 및 題記가 적혀있다. 시왕과 兩司 사이에는 10구의 판관과 옥졸들이 손에 석장 또는 몽둥이를 들고 두루마리를 쥐거나 깃발을 들고 서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하다(圖 19). 2층의 왼쪽 아래(한빙지옥)에는 저울이 있고 위에 '業'자가 있어 쓰여 있으며, 鐵床地獄 위에는 원이 하나 있고 그 위에 業자가 쓰여 있다. 이중 寒氷地獄의 저울은 業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는데, 『예수시왕생칠경』에서는

78) 『八大菩薩曼荼羅經』(大正藏 20, p. 675), “於如來前 想地藏寶冠 頭冠瓔珞 面貌熙怡寂靜 愍念一切有情”.

79) 『大毘盧遮那成佛經疏』 第12(大正藏 39)



圖 17. 閻羅大王,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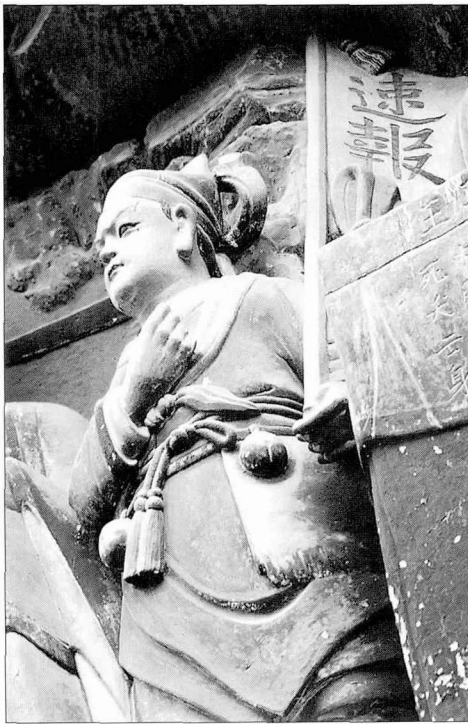


圖 18. 速報使,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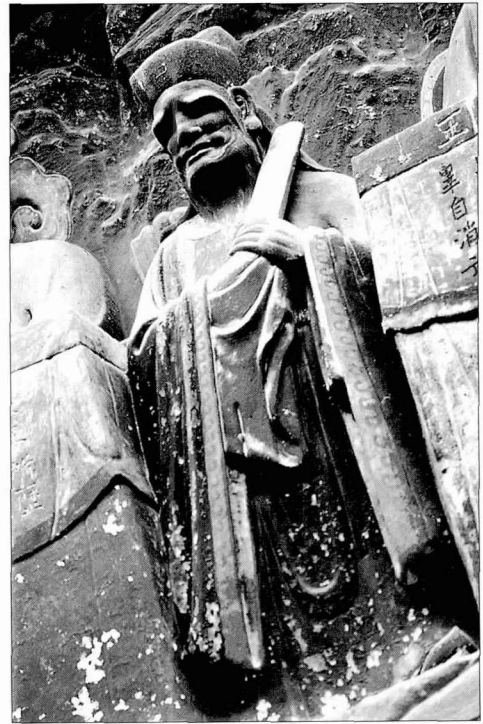


圖 19. 判官,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부분.

四七日에는 五官王을 경과하는데, 贊하기를
 오관왕의 業秤은 공중을 향해 걸려있고
 左右童子는 業簿를 온전히 한다.
 죄의 경중이 어찌 정 때문이라마는
 눈금의 오르내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前生の 因緣인 것을.⁸⁰⁾

라고 하여 시왕 중 네 번째 왕인 五官大王廳에 業秤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어, 이곳에 표현된 업칭은 바로 亡者의 죄의 무게를 달아 이에 의해 벌을 주는 업칭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측 아래에 철상지옥의 위쪽, ‘業’자가 씌여있는 원은 아마도 業鏡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시왕생칠경』에서는

五七日에는 閻羅大王을 경과하는데, 贊하기를
 五七日에 閻라대왕 전에는 죄인들의 다툼소리 멈춰지고
 죄인들은 탄식하며 情을 달게 여기지 않는구나.
 머리를 잡힌 채 業鏡을 바라보니
 비로소 前生の 일을 분명히 깨닫는구나.⁸¹⁾

라고 하여 閻라대왕청에는 업경이 있어 죄인들의 생전의 죄를 비추어 그에 따라 벌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발심인연시왕경』에서는 업경에 대해 閻라왕청에는 光明王院과 善名稱院이라는 2개의 別宮이 있는데, 그중 광명왕원에는 大鏡臺가 있어 光明王鏡(또는 淨頗梨鏡, 業鏡)이 걸려 있으며, 이 거울에는 죄인이 지은 현세에서의 일체 선악행위가 비춰진다고 설명하였다.⁸²⁾

3) 제2단 : 제1단과 제2단에 걸쳐서 모두 18지옥의 여러 공포스러운 형벌장면이 전개되어 있다. 제2단에는 刀山地獄에서 黑暗地獄에 이르는 10지옥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제1단에는 截膝地獄에서 糞地地獄에 이르는 8지옥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먼저 제2단의 10지옥을 향우측에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刀山地獄 : 산 위에 날카로운 칼 숲이 있고 2사람이 칼산 위에서 몸이 찢기우고 있다. 산 아래에는 한 옥졸이 刀山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한 사람을 잡아 막 도산 위를 향해 들어

80) 『佛說預修十王生七經』(卍續藏 150, p. 780), “第四七日過五官王 讚曰 五官業秤向空懸 左右雙童業簿全 輕重豈由情所願 低昂自任昔因緣.”

81) 『佛說預修十王生七經』(卍續藏 150, p. 780), “第五七日過閻羅王 讚曰 五七閻羅息諍聲 罪人心恨未甘情 策髮仰頭看業鏡 始覺先世事分明.”

82) 『佛說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卍續藏 150, p. 771), “彼王 次有二院 一名光明王院 二名善名稱院 光明王院於中殿 裏有大鏡臺 懸光明王鏡 名淨頗梨鏡.”



圖 20. 鑊湯地獄,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부분.

올리고 있으며, 옥졸 뒤에는 枷(목칼)를 쓴 女囚가 1인 있어 눈으로 도산을 바라보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 도산 안에서는 화염이 타오르고 도산 위에는 猛犬이 한 마리 서서 감시하고 있으며, 아래에는 毒蛇가 웅크리고 있다. 옆에는 “(每)月一日念定光佛一千遍 不墮刀山地獄 贊曰 聞說刀山不可攀 嵯峨險峻使心酸 遇逢齋日勤修福 免見前程惡業牽”라는 榜題가 있다.

② 鑊湯地獄(圖 20): 활활타오르는 불 위에 큰 솥이 놓여있고 솥 안에는 몇사람이 끓고 있어 뼈와 시체가 산같이 쌓여있다. 솥 안에서는

馬頭獄卒 1명이 손에 나무방망이를 잡고 있으며, 아래에는 옥졸이 끓어앉아 화로 안으로 풀 무질을 하고 있다. 석벽 안측에는 한 옥졸이 왼손으로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막 솥으로 집어 던지려 하고 있다. 옆에는

“日念藥師琉璃光佛一千遍 不墮鑊湯地獄 贊曰 勸君勤念藥師尊 免向鑊湯受苦辛 落在彼中何時出 早修淨土脫沈淪”이라는 榜題가 적혀있다.

③ 寒水地獄(圖 21): 두 남자가 나체로 氷雪 가운데 끓어앉아 이를 악물고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있는데, 추워서 살과 뼈가 모두 수축되었다. 옆에는 “日念賢劫千佛一千遍 不墮寒水地獄 贊曰 就中最苦是寒水 蓋因裸露對神明 但念諸佛求功德 罪業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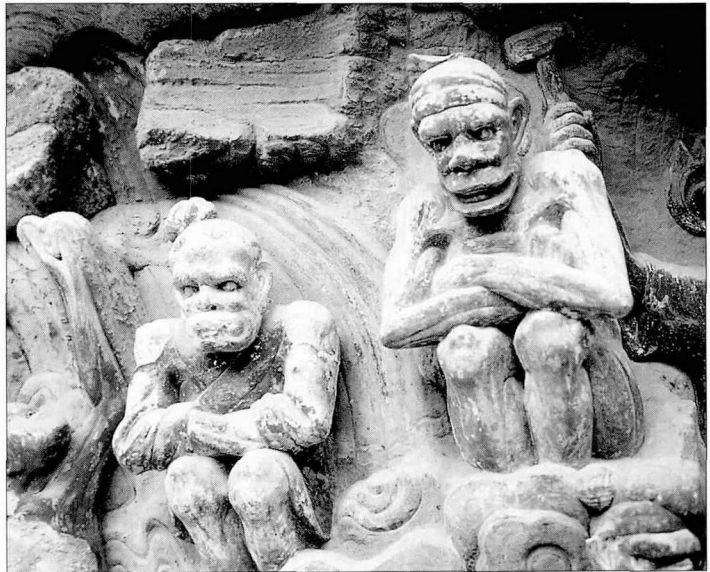


圖 21. 寒水地獄,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부분.

除好處生”이라는 내용의 榜題가 있다.

④ 劍樹地獄 : 2사람이 칼에 찢려 얼굴이 고통스럽게 보이며, 왼쪽에는 옥졸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 그림 아래부분은 훼손되어 알아볼 수가 없으나, “○○○○○○○○千遍 不○劍樹地獄 贊曰 聞說彌陀福最强 ○齊劍樹○消亡 自作○○還自受 莫得○時手○○”라는 榜題가 새겨져 있다.

⑤ 拔舌地獄 : 한 죄인이 기둥에 묶여있는데, 기둥 위에 馬頭獄卒이 다리로 가슴을 압박하고 있으며 손으로 입에서 혀를 빼내고 있으며, 기둥 뒤에는 한 죄인이 목에 칼을 쓰고 앉아있다. 榜題는 다음과 같다. “○○○○如來一千遍 不墮拔舌地獄 贊曰 拔舌更使鐵牛耕 萬種凌持不暫停 要覓閻王親叫問 持念地藏一千聲”

⑥ 毒蛇地獄 : 두 사람의 몸 위에 세 마리의 독사가 맹렬하게 덤벼들고 있다. 앞에는 옥졸이 여인을 향해 독사를 던지려하고 있으며, 옆에서 한 여자가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혼비백산해 있다. 옆에는 “日念大勢至如來一千遍 不墮毒蛇地獄 贊曰 菩薩慈悲廣大多 救苦常教出愛河 九品蓮花露有分 毒蛇豈敢便相過”라는 榜題가 새겨져 있다.

⑦ 剉碓地獄(圖 22) : 한 옥졸이 양손으로 절구손잡이를 밀고, 양발로 절구끝을 밀고 있다. 절구 속에는 옥졸이 웅크리고 있어 두 손으로 죄인을 절구 속에 넣으려 하는데, 죄인은 이미 사지가 찢겨지고 배가 터져 장이 밖으로 나오고 피가 튀고 있다. 옆에서는 한 여인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차마 보지 못하고 있다. 옆의 榜題에는 “日念觀音菩薩千遍 不墮剉碓地獄 贊曰 斬身剉碓沒休時 都緣造惡不修持 觀音哀怒衆生苦 免離地獄現慈悲”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圖 22. 剉碓地獄,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부분.

⑧ 鋸解地獄 : 죄인이 양 다리를 벌리고 형틀에 묶여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이미 두다리 사이에는 큰 톱이 끼워져 있다. 두명의 옥졸이 큰 톱을 죄인의 다리 사이에 넣고 힘을 쓰고 있으며 여기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 형틀 위에는 鋸解地獄이라는 4 글자가 적혀있고 榜題는 “日念盧舍那佛千遍 不墮鋸解地獄 贊曰 如來功德大圓明 由如朗月出群星 但念能除多種罪 鋸解無由敢問君”이다.

⑨ 鐵床地獄 : 활활타는 화로 위에 鐵床이 놓여있고 철상 위에 해골이 한 무더기 쌓여있는데 상 옆에 한 사람이 손으로 자기의 배를 쓰다듬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상의 왼쪽에는 한 惡鬼가 창을 잡고 나체인물의 가슴을 잘라 막 상위로 놓으려 하고 상의 우측 아래에는 옥졸이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고 손으로 吹火筒을 잡고 힘을 써서 불을 뿜으려하고 있다. 옆에는 “日念藥王藥上菩薩千遍 不墮鐵床地獄 贊曰 菩薩眞名號藥王 鐵床更用火燒燬 直饒造業如山重 但念眞名免衆殃”의 榜題가 있다.

⑩ 黑暗地獄 : 양쪽 눈이 실명된 남자가 앞에 있는 길을 더듬고 있어 盲人으로 黑暗을 비유하고 있다. 榜題는 “日念釋迦牟尼佛一千遍 不墮黑暗地獄 贊曰 持齋事佛好看經 積善冥司注姓名 更誦彌陀一千遍 自然黑暗顯光明”라고 새겨져 있다.

4) 제1단 : 중앙에는 趙智鳳이라고 생각되는 승려상이 있는데, 높이 1.45m로 가사를 입고 오른손에 梵夾을 들고 왼손에는 수인을 결하고 있다. 이 상의 뒤에는 3층의 석탑이 있고 승려상 좌우 양측에는 각각 4지옥씩 모두 8지옥의 장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① 截膝地獄(圖 23) : 상하 2층으로 조각이 나뉘어져 모두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음과 같이 모두 9장면이 전개되고 있다.

ㄱ) 勸戒酒圖 : 截膝地獄의 동쪽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4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 父不識子(圖 23-1) : 왼쪽 위부분에 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가슴을 드러내고 상위에 앉아있는데 두 눈은 술에 취하여 옆에 아들이 그를 시봉하고 있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 夫不識妻(圖 23-2) : 오른쪽 위쪽에 있다. 丈夫가 술에 취하여 정신없이 가슴을 풀어헤치고 있는데, 허리 사이에는 돈꾸러미가 보인다. 두 눈은 술에 취하여 몽롱하고 부인이 그를 부축하며 남편이 그 두 발을 잡고있다.

㉢ 兄不識弟(圖 23-3) : 형이 취하여 땅 위에 앉아 옷은 풀어헤치고 옆에서 동생이 시봉하고 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동생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다.

㉣ 姊不識妹(圖 23-4) : 언니가 술에 취하여 오른손을 동생에게 내밀고 머리를 옆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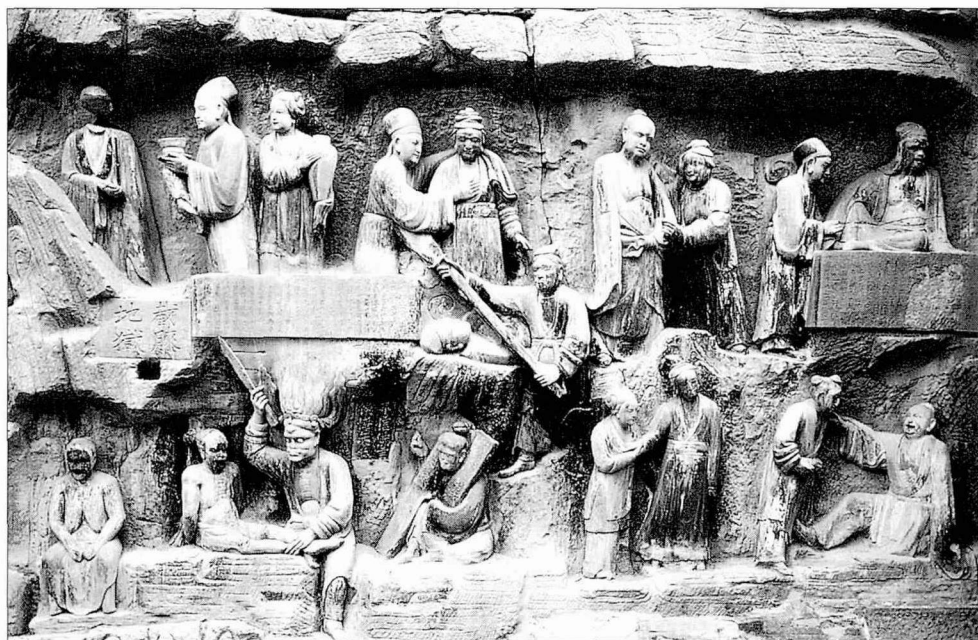


圖 23. 截膝地獄,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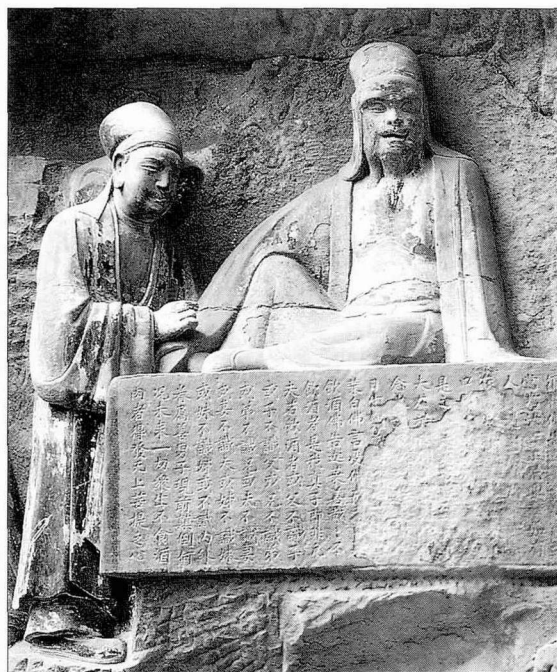


圖 23-1. 截膝地獄 부분(父不識子)



圖 23-2. 截膝地獄 부분(夫不識妻)



圖 23-3. 截膝地獄 부분(兄不識弟)



圖 23-4. 截膝地獄 부분(姊不識妹)

기울이고 손으로 동생의 옷깃속을 만지며 황홀해하고 있다.

ㄴ) 吒崛摩羅飲酒墮地獄圖：截膝地獄의 중간부에 위치하고 있다. 오른쪽 위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있는데, 여자는 앙굴마라의 어머니로 웃옷을 풀어헤치고 있으며, 남자는 吒崛摩羅로 오른손을 여인의 가슴 속으로 넣으려 하고 있다. 앙굴마라는 술을 마시고 지옥에 빠졌는데, 술을 먹은 후 성질이 난폭해져 어머니를 욕보이고 아버지를 죽였다고 한다.

ㄷ) 槃陀女賣酒墮地獄圖(圖 23-5)：지옥도 오른쪽 위에 있다. 雙髻의 머리를 한 槃陀女⁸³⁾가 손에 술병을 들고 사람들에게 술을 팔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술잔을 들고 있는데, 가사를 입고있는 비구에게 술을 내밀고 있다. 비구는 오른손을 뻗어 술잔을 받아들려고 한다. 이것은 비구는 본래 계를 잘 지켰으나 결국 술을 파는 남녀의 유혹을 받아 飲酒의 계를 범하였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음주를 죄로 여겨 술을 권하는 사람도 벌을 받는다고 한다.

ㄹ) 截膝地獄本相圖：한 죄인이 裸身으로 양 발을 뺀고 땅 위에 앉아있고 옆에 옥줄이 왼손으로 양 발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무릎 부위를 향하여 치려 하고 있다.

83) 『華嚴十惡經』에서는 吉槃陀女라고 하였으나 여기에는 槃陀女라고 되어 있다.



圖 23-5. 截膝地獄 부분(槃陀女賣酒墮地獄圖)

② 鐵圍山阿鼻地獄 : 조각 가운데 한 산이 있어 산의 주위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담장 위에는 毒蛇와 猛犬이 불을 뿜고 있어 성 전체가 불붙고 있다.⁸⁴⁾ 그림 아래에는 大藏經을 인용하여 부처의 계율을 잘 지키지 않고 동물(고기)을 먹은 중생들은 阿鼻地獄에 떨어진다는 내용을 새겨 놓았다.

③ 餓鬼地獄 : 조각은 상, 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위 우측에 목이 가는 餓鬼, 좌측에 半裸의 餓鬼가 가슴 앞에서 손을 감싸 쥐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다. 아래에는 한 아귀가 칼을 쓰고 있는데 위에는 “業鏡炤然披不虛 破齋毀戒殺猪鷄”의 경구가 쓰여져 있다. 이 지옥의 위에는 餓鬼地獄이라고 새겨져 있고, 이어 大藏經을 인용하여 “破齋犯戒”자는 餓鬼地獄에 떨어진다는 내용의 榜題가 있다.

④ 刀船地獄 : 전체 조각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윗부분은 養鷄女圖로, 가운데에는 雙髻의 젊은 춘부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두 손으로 닭장의 닭을 때려잡고 있는데, 닭장 앞에는 두 마리의 닭이 지렁이 한 마리를 서로 먹으려고 하고(圖 24) 몇마리의 닭이 닭장에서 도망치려 하고 있다. 아래는 지옥도로 가운데에는 큰 배가 있어 배 안에는 날카로운 칼 숲이 있고 두 죄인이 칼에 찢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 배 위에는 “自作自受 非天與人”의 8자가 쓰여 있다. 배위 옆 벽에는 養鷄者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내용의 대장경의 經文이 적혀있다.

⑤ 鐵輪地獄 : 두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운데 나체의 남자가 두손이 기둥에 묶인 채 양 겨드랑이 아래 2개의 鐵輪에 끼여있다. 오른쪽에는 馬面의 옥졸이 죄인의 입을 벌리고 액을 넣고 있다. 옆에는 榜題가 있으나 몇 부분이 마멸되어 알 수 없다.

⑥ 鑊湯地獄(圖 25) : 鐵輪地獄의 왼쪽 위에 있다. 가운데 맹렬한 불꽃 위에 큰 솥이 걸려있고 솥 속은 필필 끓고 있다. 오른쪽에 馬面獄卒이 두 손으로 한 사람의 머리와 발을 솥

84) 『地藏菩薩本願經』에서는 이와 같은 지옥을 無間地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大正藏 13, p. 780).



圖 24. 刀船地獄,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부분.



圖 25. 鑊湯地獄,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부분.



圖 26. 鐵輪地獄,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부분.



圖 27. 糞穢地獄,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부분.

속으로 넣으려 하고 있다. 옆에는 鑊湯地獄이라 적고, 자비심이 없는 자가 확탕지옥에 떨어진다는 내용을 적었다.

⑦ 鐵輪地獄(圖 26) : 鐵輪地獄의 오른쪽에 있다. 죄인이 1인 나체로 무릎을 꿇고 있고 두 손은 기둥 위에 묶여있다. 몸 앞에는 馬面의 옥졸이 큰 창을 잡고 배를 찌르고 있으며 창 끝이 배뒤로 나오고 있다.

⑧ 糞穢地獄(圖 27) : 鐵輪地獄의 위쪽에 있다. 방형의 큰 糞池 안에 3명의 죄인이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분지의 벽 위에는 두 마리의 독사가 죄인을 향하여 화염을 토하고 있다.

왼쪽에는 鬼卒이 철퇴를 들고 죄인을 행하여 달려나가고 있다. 옆에는 고기를 먹은 자는 糞穢地獄에 떨어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糞穢地獄의 우측에는 “父母口畏兒飯故事圖”가 조각되어 있다.

이상의 18지옥의 조상은 모두 세련된 예술기법으로 풍부하고 생동감있는 생활소재로 권선징악적인 내용을 표출하고 있다.⁸⁵⁾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폭의 석조 地獄變은 바로 남송대 현실사회 중 하층민의 고난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옥의 장면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여 아마도 사천 사원벽화로 그려진 地獄變相을 그대로 조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V. 寶頂山石窟 地獄變相의 所依經典

이상에서 보정산석굴 지옥변상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大佛灣 20號龕의 地獄變相에는 刀山地獄을 비롯하여 鑊湯地獄, 寒水地獄, 劍樹地獄, 拔舌地獄, 毒蛇地獄, 剉碓地獄, 鋸解地獄, 鐵床地獄, 黑暗地獄(이상 제2단의 10지옥), 截膝地獄, 阿鼻地獄, 餓鬼地獄, 刀船地獄, 鑊湯地獄, 鐵輪地獄, 鑿戟地獄, 糞池地獄(이상 제1단의 8지옥) 등 모두 18지옥과 지장보살, 시왕 등이 표현되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옥변상의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경전에 의거하여 표현되었는가. 이하 이 장에서는 지옥변상의 소의경전에 대하여 살펴보하고자 한다.

지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경전은 상당수에 달한다. 佛典 중에서 가장 초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法句經』을 비롯하여 『숫타-니파아타 Sutta-nipata』, 『長阿含經』, 『增一阿含經』 등에서 여러 지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후 『大毘婆沙論』이나 『正法念處經』·『俱舍論』·『大智度論』 등 후기 佛典에 이르게 되면 더욱 체계화된 지옥사상이 전개되었는데, 이들 경전에서 언급한 지옥은 대체로 八熱地獄, 八寒地獄, 孤地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세기 후반경에 이르러서는 『十八泥梨經』이라는 본격적으로 지옥에 관하여 서술한 경전이 한역되었다. 이 경전은 安世高가 번역한 것으로 18地獄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언급한 18지옥의 명칭⁸⁶⁾은 원어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의미도 알 수 없어 이해하기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熱地獄, 劍樹地獄, 鐵磔地獄, 夾山地獄을 비롯한 기타 여러 지옥에 대하여 서술한

85) 이상 18지옥의 설명은 劉長久·胡文和·李永翹 編著, 『大足石刻研究』(四川省社會科學出版社, 1985. 4), pp. 485-490, 黎方銀, 『大足石窟藝術』(重慶出版社, 1990), pp. 104-120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86) 이 경전에서 언급한 18지옥의 명칭은 先就乎, 居盧倅略, 桑居都, 樓, 旁卒, 草烏卑次, 都意難且, 不盧都般乎, 烏意都, 泥盧都, 烏略, 烏滿, 烏藉, 烏呼, 須健渠, 末頭乾直呼, 區逋塗, 沈莫 등이다. 『十八泥梨經』(大正藏 17, pp. 528-529).

것으로 보인다.⁸⁷⁾

이밖에 『經律異相』(권49, 50의 地獄部 상, 하 2편), 『觀佛三昧海經』·『問地獄經』·『淨度三昧經』·『佛名經』·『法苑珠林』(권7 地獄部), 『非業應報教化地獄經』, 『阿毘曇婆沙論』, 『三法度論』, 『曇婆沙論』 등에서도 지옥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이들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의 명칭은 일부 보정산석굴의 18지옥과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보정산석굴 지옥변상의 18지옥은 한 경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전 중의 지옥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3단의 시왕상은 『預修十王生七經』, 제2단의 10지옥은 『地藏菩薩十齋日』과 『大乘四齋日』, 제1단의 8지옥은 『大方廣華嚴十惡品經』에 주로 의거하여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제3단에 묘사된 시왕의 명칭은 『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서 유래하였다. 이 경전의 원제목은 『佛說閻羅王授記四衆逆修生七往生淨土經』이며, 줄여서 『불설예수시왕생칠경』·『시왕생칠경』·『시왕경』이라고 부르는데, 唐代에 成都府 大聖慈寺의 沙門인 藏川이 찬술했다고 한다. 중심내용은 亡者が 死後 명부로 가는 도중에 시왕청을 경과하는 시기와 각 시기에 망자를 심판하는 시왕의 명칭에 대한 것으로, 初七日에는 秦廣王, 二七日에는 初江王, 三七日에는 宋帝王, 四七日에는 五官王, 五七日에는 閻羅王, 六七日에는 變成王, 七七日에는 泰山王, 百日에는 平等王, 1周期에는 都市王, 그리고 마지막으로 3回期에는 五道轉輪大王이 망자를 심판한다고 밝히고 있어 시왕신앙을 고취하는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시왕경에 대해서는 남송 嘉熙元年(1237)에 宗鑑이 집술한 『釋門正統』 제4 利生志에, “十王經은 成都府 大聖慈寺의 사문 藏川이 찬술한 것이다”라는 기록이 보이며,⁸⁸⁾ 또 스타인(A. Stein)이 돈황에서 수집한 문서 중에 다수의 당말오대 경의 『예수시왕생칠경』이 포함되어 있어 적어도 唐代에는 이 경이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은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널리 유포되어 민간에서의 시왕신앙 성립 및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경전 외에 시왕관계 경전으로는 역시 藏川이 찬술했다고 전해오는 『發心因緣十王經』도 있으나 이 경전은 일본에서 무로마찌시대 또는 헤이안시대 말기경 만들어진 僞經이라고 추정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시왕생칠경』에 근거하고 있으며,⁸⁹⁾ 내용은 『시왕생칠경』

87) 노현석은 이 경전을 번역한 사람이 이란 파르티아왕국(安息國)의 安世高였던 점을 들어 아마도 18지옥의 명칭이 이란 계통에서 전래한 발음의 音寫가 아닌가 하였다. 盧滋錫, 『佛教의 地獄考察-正法念處經을 중심으로』(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5), p. 28.

88) 宋 宗鑑 集, 『釋門正統』第4 利生志(卍藏經 75, p. 322), “又有十王經者 乃成都府聖慈寺沙門藏川所撰.”

89) 眞鍋廣濟, 『地藏菩薩の研究』(1960), p. 129.

과 마찬가지로 명부시왕에 관한 교법을 설한 것으로 인간이 사후에 시왕청을 경과하는 과정에 대해 적고 있다. 물론 『발심인연시왕경』은 성립시기가 늦고 주로 일본에서 유포되었던 점으로 보아 보정산석굴의 지옥변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왕 각각에 本地佛을 표현한 점은 대즉 지옥변상에서 각 왕 위에 본지불을 배치한 것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혹 『발심인연시왕경』의 성립에 앞서 카마쿠라(鎌倉)시대에 성립된 본지불에 대한 신앙이 전해져 지옥변상에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중국에서는 본지불에 대한 예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시왕과 관련된 이 두 경전이 모두 成都 大聖慈寺의 沙門 藏川이 찬술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는 사실은 보정산석굴의 지옥변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이 지역에서는 옛부터 발전되어 온 지옥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당대에 이르러 시왕경이 성립되었고, 시왕경의 성립 이후에는 이 경전을 중심으로 한 지옥신앙이 성행하였을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천성 지역에서 유난히 지옥변상이 많이 제작되었던 사실이나, 남송대에 이르러 보정산석굴의 지옥변상과 같은 대규모의 지옥변상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와 같은 것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10지옥의 소의경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 보았듯이 10지옥의 각 지옥장면에는 榜題가 있는데, 일부 탈락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每月 ○○일에 ○○佛을 1천번 염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적은 후 7언절구의 贊을 붙인 것으로, 각 지옥지옥의 명칭과 각 날짜에 염하는 불·보살의 명칭 등을 적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榜題의 내용은 바로 十齋日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이 주목된다.⁹⁰⁾ 십재일은 한달 중에 1일·8일·14일·15일·18일·23일·24일·28일·29일·30일 등 10일을 정하여 持戒하는 날로서 『地藏菩薩本願經』에서는 매일 10번의 정해진 날짜에 불, 보살 및 성현의 형상 앞에서 『地藏보살본원경』을 읽으면 모든 재앙과 橫厄과 질병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⁹¹⁾ 그런데 宋代의 宗鑑은 『釋門正統』(1237년) 卷4에서 십재일이 『十齋經』과 『寶積經』

90) 원래 齋日이란 八關齋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든 귀신이 인간의 수명을 빼앗고 질병으로 인간을 불길하게 하는 날로서 이날을 택하여 재를 지내 신을 닦고 복을 다스리면 흉한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하여 정해진 날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실과 식사 등을 삼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십재일에 관해서는 金廷禧, 『朝鮮時代(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의 十王版畫』, 『美術史學研究』 201號(韓國美術史學研究會, 1994) 참고.

91) 『地藏菩薩本願經』 卷6 如來讚嘆品(大正藏 13, p. 783 中), “若未來世衆生 於月一日八日十四十五十八日二十三二十四二十八日二十九三十日 是諸日等 諸罪結集 定其輕重 南閻浮提衆生舉止動念 無不是業 無不是罪 何況恣情 殺生竊盜邪淫妄語 百千罪狀 能於是十齋日 對佛菩薩諸賢聖像前 讀是經一遍 東西南北百由旬內 無諸災難 當此居家 若長若幼 現在未來百千歲中 永離惡趣 能於十齋日 每轉一遍 現世令此居家 無諸橫病 衣食豐溢.” 한글번역은 『原本解釋 地藏經』 한길로 譯(寶蓮閣, 1980), pp. 175-176을 참고함.

에서 나왔음을 말하고 있는데,⁹²⁾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경전들은 아마도 돈황에서 발견된 『大乘四齋日』과 『地藏菩薩十齋日』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두 경전은 모두 齋日에 관하여 설명한 짧은 글로서 “○일에는 ○께서 하계하시니 ○을 염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며 재를 지키면 ○겁의 죄를 없앨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지장보살십재일』과 『대승사재일』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달 중 정해진 열번의 날에 불, 보살의 형상 앞에서 『地藏菩薩本願經』을 읽으면 재앙이 없어진다고 하는 『지장보살본원경』의 내용과는 달리, 십재일의 날짜마다 각각 念하는 불·보살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즉 10번의 재일을 모두 지장보살과 관련시켜 논하고 있는 『지장보살본원경』에 비하여 각 날짜에 각각 이 세상에 내려오는 존상과 염불대상이 되는 존상을 결부시키므로써 한층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初一日에는 定光如來, 初八日에는 藥師琉璃光佛 등 10일간의 날짜마다 念하는 불·보살의 명칭이 정해져 있으며 지장보살은 24일에 念하는 보살로서 언급되어 있다(표 3).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장신앙에서 비롯된 십재일신앙이 점차 지장신앙과는 무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렇듯이 십재일신앙은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비롯되었지만 『地藏菩薩十齋日』, 『大乘四齋日』 등에 이르면 각 재일에 염하는 불, 보살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등 발전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3>에서 보듯이 보정산석굴의 10지옥 변상에 새겨진 명문은 『地藏菩薩十齋日』, 『大乘四齋日』과 贊文의 구조, 齋日, 願佛, 地獄名稱 등에서 상당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대족의 10지옥변상이 위 경전에 근거하였음을 알게하는 것인데, 이 두 경전의 성립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개 9~10세기경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돈황 등에서 유통되었던 것을 볼 때⁹³⁾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甘肅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천지역에 이들 경전이 일찍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중 10지옥의 명칭과 명문의 내용은 이들 경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지옥변상의 명문 중 贊曰로 시작되는 부분은 『地藏菩薩十齋日』, 『大乘四齋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일부 내용이 『예수시왕생칠경』의 贊文과 일치하고 있다.

92) 世間の 節令 중에는 또 十齋日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 十齋經 또는 寶積經에서 말하는 것으로 매월 齋日이 있어 1, 8, 14, 15, 18, 23, 24, 28, 29, 30일이다. 각 佛菩薩의 名號를 부르면 福을 구하고 罪를 면할 수 있다.

93) 『지장보살십재일』은 현재 중국본과 티벳본의 2종이 전하고 있는데, 그중 티벳본은 玄奘 譯 『金剛般若波羅密多經』(大正藏 8, p. 750)의 뒷면에 手寫本으로 기재되어 있어 9세기말로 추정되며, 중국본은 S.5892本에 “甲戌 三界寺”에서 조성하였다는 발문이 있어 삼계사의 창건연대(830년~840년)와 관련하여 854년 또는 914년, 974년의 갑술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ichel Soymié, “Les Dix Jours de Jeûne de Kṣitigarbha,” *Hautes études orientales 10: Contributions aux études sur Touen-Houang* (Geneve-paris: Paris Librairie Droz, 1979), p. 137.

이밖에 銼確地獄의 위쪽에는 『出曜經』⁹⁴⁾의 경문 일부를 인용하여 적고 있다. 『출요경』은 398년~399년에 姚兆秦 竺佛念이 한역한 모두 30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의 경전으로, 榜題에는 불과 34자의 짧은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趙智鳳이 경전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제1단에 위치한 8지옥의 소의경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8지옥 장면에는 “大藏經云”, “大藏佛告迦葉” 등으로 시작되는 긴 경문이 새겨져 있다. 이 경문은 胡文和가 고증한 바와 같이 『華嚴十惡經』의 내용을 적은 것이다.⁹⁵⁾ 『華嚴十惡經』은 『大方廣華嚴十惡品經』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의 고승이 찬술한 것으로 늦어도 6세기 말 이전에는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당 麟德 元年(664)에 道宣이 편찬한 『大唐內典錄』 중에는 “華嚴十惡經은 隋 費長房의 目錄에서는 僞經 중에 들어있다”⁹⁶⁾는 내용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인용한 費長房의 『歷代三寶記』는 수 開皇17년(597)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 『화엄십악경』은 적어도 597년 이전에 민간에서 유통되었던 것 같다. 또 仁壽二年(602) 隋 彦棕이 펴낸 『衆經

<표 3> 『地藏菩薩十齋日』·『大乘四齋日』과 寶頂山石窟 지옥변상의 齋日·願佛·地獄 명칭

| | 『地藏菩薩十齋日』 | | 『大乘四齋日』 | | 대족석굴 지옥변상 | |
|-------|-----------|------|---------|------|-----------|--------|
| 齋 日 | 願 佛 | 地 獄 | 願 佛 | 地 獄 | 願 佛 | 地 獄 |
| 初 一 日 | 定光如來 | 刀槍地獄 | 定光如來佛 | 刀槍地獄 | 定 光 佛 | 刀山地獄 |
| 初 八 日 | 藥師琉璃光佛 | 糞尿地獄 | 藥師琉璃光佛 | 粉草地獄 | 藥師琉璃光佛 | 鑊湯地獄 |
| 十 四 日 | 現劫千佛 | 鑊湯地獄 | 現劫千佛 | 鑊湯地獄 | 現劫千佛 | 寒水地獄 |
| 十 五 日 | 阿彌陀佛 | 寒水地獄 | 阿彌陀佛 | 寒水地獄 | (阿彌陀佛) | (劍樹地獄) |
| 十 八 日 | 觀世音菩薩 | 劍樹地獄 | 觀世音菩薩 | 劍樹地獄 | (地藏菩薩) | (拔舌地獄) |
| 二十三 日 | 盧舍那佛 | 餓鬼地獄 | 盧舍那佛 | 餓鬼地獄 | 大勢至菩薩 | 毒蛇地獄 |
| 二十四 日 | 地獄菩薩 | 斬折地獄 | 地藏菩薩 | 斬折地獄 | 觀世音菩薩 | 剉碓地獄 |
| 二十八 日 | 阿彌陀佛 | 鐵鋸地獄 | 阿彌陀佛 | 鐵鋸地獄 | 盧舍那佛 | 鋸解地獄 |
| 二十九 日 | 藥王藥上菩薩 | 碓磨地獄 | 藥王藥上菩薩 | 碓磨地獄 | 藥王藥上菩薩 | 鐵床地獄 |
| 三十 日 | 釋迦牟尼佛 | 灰何地獄 | 釋迦牟尼佛 | 寒水地獄 | 釋迦牟尼佛 | 黑暗地獄 |

94) 『出曜經』(大正藏 4)

95) 胡文和는 大足石窟 大佛灣 20號龕 지옥변상을 大方廣華嚴十惡品經變이라 부르고 있다. 이 경전의 명칭은 『大唐內典錄』, 『衆經目錄』, 『開元釋教錄』 등에서는 華嚴十惡經, 『大周刊定衆經目錄』에서는 華嚴十惡品經, 敦煌本에서는 大方廣華嚴十惡品經이라 하였다. 胡文和, 『四川道教佛教石窟藝術』, pp. 307-315.

96) 『大唐內典錄』 卷第十 歷代所出疑僞經論錄 第8(大正藏 55卷, p. 334).

目錄』⁹⁷⁾, 武周天冊萬歲元年(695) 釋 明佺이 편찬한 『大周刊定衆經目錄』⁹⁸⁾, 釋 智升의 『開元釋教錄』⁹⁹⁾에도 이 경전을 위경으로 분류하였다.¹⁰⁰⁾

그런데 『화엄십악경』의 寫經卷이 돈황석굴에서 발견되어 현재 大英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S. 1320) 이 사경권은 경문이 부분적으로 산일되기는 하였지만, 경문의 내용을 볼 때 보정 산석굴 지옥변상의 8지옥은 상당수 이 경전에 나오는 8지옥의 내용을 도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華嚴十惡經』에서 언급한 8지옥은 鋸床地獄, 截膝地獄, 阿鼻地獄, 鑊湯地獄, 炙床地獄, 剉碓地獄, 糞穢地獄, 鐵輪地獄 등으로, 이 가운데 截膝地獄, 阿鼻地獄, 鑊湯地獄, 糞穢地獄, 鐵輪地獄의 5지옥이 보정산석굴 지옥변상과 일치하며, 보정산석굴 8지옥 중에 표현된 刀船地獄, 鑿戟地獄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¹⁰¹⁾

그리고, 지옥변상에 새겨진 “大藏經云”, “大藏佛告迦葉” 등으로 시작되는 榜題도 상당수 『華嚴十惡經』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몇몇 지옥의 설명은 『화엄십악경』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8지옥의 중앙 사리탑 바로 아래에는 『華鮮經』을 인용하고 있으며, 刀船地獄의 榜題는 『화엄십악경』에는 없다. 또, 鑊湯地獄의 榜題에는 『護口經』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경문의 내용과 지옥장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철륵지옥의 榜題에 『화엄십악경』 중 鐵輪地獄, 炙床地獄, 鑿戟地獄의 설명을 새겨넣었다던지 鑿戟地獄의 榜題에는 食肉者가 떨어진다고 서술한 糞穢地獄의 내용 일부를 새겨놓기도 하였다. 8지옥의 榜題에 인용된 경전 가운데 『護口經』은 『大正新修大藏經』에도 수록되지 않았으며, 17세기 藕益禪師 (1599-1655)가 편찬한 『閱藏知律』에도 없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이전에 산일된 것으로 보인다.¹⁰²⁾ 또, 『華鮮經』의 원래 명칭은 『華鮮經中說罪福經』인데, 隋 彦琮의 『衆經目錄』 권4¹⁰³⁾, 『大周刊定衆經目錄』¹⁰⁴⁾ 등에서는 위경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 의해 볼 때, 보정산석굴의 지옥변상은 『예수시왕생칠경』, 『대방광화엄십악품경』, 『지장십재일』, 『대승사재일』 등을 중심으로 하여, 『출요경』, 『화선경』, 『호구경』 등 다양한 경전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2단에 표현된 10지옥과 제1단의 8지

97) 『衆經目錄』 卷第四 五分疑偽(大正藏 55卷, p. 173).

98) 『大周刊定衆經目錄』 卷第十五 偽經目錄(大正藏 55卷, p. 472).

99) 『開元釋教錄』 卷第十八 別錄中疑再詳錄第六(大正藏 55卷, p. 675).

100) 胡文和, 『四川道教佛教石窟藝術』, p. 314.

101) 剉碓地獄의 장면은 제2단의 10지옥 중에 표현되었다.

102) 劉長久·胡文和·李永翹 編著, 『大足石刻研究』, p. 286 및 p. 319 참조.

103) 『衆經目錄』 卷第四 五分疑偽(大正藏 55卷, p. 173).

104) 『大周刊定衆經目錄』 卷第十五 偽經目錄(大正藏 55卷, p. 472). 여기에는 華鮮經中說罪福經 1卷이라 적고 있다.

옥은 18지옥으로 함께 표현된 것이 아니라 10지옥과 8지옥이 각각 다른 경전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鑊湯地獄이 제1단과 제2단에 모두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경전 가운데 상당수가 僞經이었던 사실은 대족의 지옥변상이 민간에서 유통되고 있던 경전을 참고하고 민간의 지옥신앙까지도 흡수하여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옥변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장보살의 모습이 『八大菩薩曼荼羅經』, 『大毘盧遮那成佛經疏』와 같은 밀교도상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은 대족 북산석굴에 다수 조성된 僧侶形, 頭巾形 지장보살상과 함께 사천지역에서는 중원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두건형, 밀교형의 지장보살 등 특수한 지장보살상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사천의 불교미술이 갖고있는 다양성과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VI. 寶頂山石窟 地獄變相과 韓國 十王圖像의 關係

지금까지 중국 사천성 대족현에 위치한 寶頂山石窟 20호감의 지옥변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大足 寶頂山石窟의 지옥변상에 대한 연구는 비단 지옥석굴의 조성배경과 도상 등을 밝히는 것을 넘어 과연 이와 같은 지옥변상도의 형식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하 본장에서는 대족의 지옥변상이 한국 시왕도상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말~통일신라시대초에 시왕신앙이 전래된 이래 고려, 조선조를 통하여 수많은 시왕도들이 제작되었다. 그렇지만 현존하는 시왕도는 고려시대 말, 조선초의 작품 몇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 들이다. 그나마 고려시대의 작품들은 제작 연대라든가 국적조차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과연 한국의 시왕도의 도상적 연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시왕도는 아마도 다른 고려불화와 마찬가지로 宋, 元代 시왕도의 영향을 받지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에는 남송대에 이르러 浙江省의 寧波에서 시왕도들이 다수 제작되어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현재 일본의 박물관과 사찰 등에는 약 300여축에 달하는 南宋代 시왕도(圖 28)들이 남아있다.¹⁰⁵⁾ 이 시왕도들은 아마 고려시대 활발하게 개설되었던 중국 강남지방과의 해상교통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고려시대 시왕도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일본 幽玄齋소장 시왕도라든가 미국 조셉 캐롤(Joseph Carol), 하와이 호놀룰루미술관 등지에 소장

105) 井手誠之輔, 「陸信忠考-涅槃表現の變容」, 『美術研究』 354(1992. 9), pp. 19-20 및 梶谷亮治, 「日本における十王圖の成立と展開」, 『佛教藝術』 97(1974. 7), p. 87.



圖 28. 十王圖, 陸信忠筆, 남송,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소장.



圖 29. 十王圖(閻羅大王), 조선전기, 일본 寶性寺소장.

되어 있는 시왕도는 寧波佛畫의 영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조선전기에 제작된 일본 入江毅夫소장 시왕도와 일본 호쇼지(寶性寺)소장의 16세기 시왕도(圖 29) 역시 영파불화 및 돈황본 시왕경변상도의 영향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는 보정산석굴의 영향이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16세기에 판각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전기의 시왕판화의 도상이 보정산석굴의 지옥변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필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가 있지만,¹⁰⁶⁾ 시왕판화의 圖像과 贊文이 보정산석굴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 아마도 고려말~조선전기에 걸쳐 영향을 받지않았나 생각된다. 즉 1529년 전라남도 광양 萬壽庵에서 간행된 『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¹⁰⁷⁾의 뒷부분에

106) 金廷禧, 「朝鮮時代〈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의 十王版畫」, 『美術史學研究』 201號 (韓國美術史學研究會, 1994) 참고.



圖 30. 十王版畫(秦廣大王), 1529년, 전남 광양 萬壽庵刊, 민영규소장.

접적인 영향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보정산석굴 지옥변상의 榜題가 『지장십재일』, 『대승사재일』, 『에수시왕생칠경』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때, 大足石窟의

첨부된 시왕판화(圖 30)는 모두 10면에 걸쳐 판각되어 있는데, 화면을 크게 2분하여 위에는 “○日에는 ○께서 하계하심을 뵈옵는데 ○을 一千遍 念하면 ○地獄에 떨어지지 않는다(○日 伏遇○殿下界 念南無○一千遍 不墮○地獄).”라는 내용과 7언절구의 贊詩를 적고 ‘伏遇’와 ‘殿下界’의 사이에 각각 ‘○王殿’이라 명시한 후, 아래에는 각 왕이 지옥에서 망자를 심판하는 모습을 새겼다. 그런데 윗부분에 새겨져 있는 “○日에는 ○께서 하계하심을 뵈옵는데 ○을 一千遍 念하면 ○地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정산석굴 지옥변상에 새겨진 榜題와 각 왕의 재일과 원불, 지옥의 명칭 등에서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물론 贊詩의 일부분, 예를 들어 제5 拔舌地獄, 제7 剉碓地獄, 제9 鐵床지옥, 제10 黑暗地獄의 贊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두 도상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서로의 영향관계를 비정해 볼 수 있다. 두 도상이 규모에 있어서나 또는 조각과 판각이라는 차이점으로 볼 때 직

107) 『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는 江北僧 圓奘이 集述한 것으로서 唐代 西明寺沙門 道世가 撰述한 『法苑珠林』(大正藏 53) 卷87~89의 내용을 인용하여 여러 경전에 언급된 齋日의 내용에 대하여 서술한 뒤 持戒와 設齋의 공덕 등을 소개한 책이다. 책의 구성은 2면에 걸쳐 『法苑珠林』 卷88 遮意部 第1의 내용이 실려 있고 이어 『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라는 題下에 본문이 실려 있다. 본문의 내용은 먼저 八關齋戒名에 대하여 적은 뒤 八關齋戒의 실행법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어서 『법원주림』 권 87~89의 내용을 選擇, 增補, 訂正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글의 말미 부분에 10매의 판각된 시왕판화를 첨부하였다. 시왕판화의 판본은 세로 23.6cm 가로 14.2cm로 『여래행적』에 실린 다른 版型에 비하여 세로가 조금 길고 가로가 조금 짧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다른 판들과 달라 보이지만 『팔관재심요』와 동일하게 “戒文”이란 版心으로 되어 있어 같은 시기에 판각하여 엮은 것으로 본다.

지옥변상이 제작된 남송대 경에는 이들 경전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이것을 齋日에 관한 『八關齋戒』를 편찬하면서 차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에 따라 10세기말~11세기초 또는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경에 찬술된 것으로 보이는 『팔관재계』에 이와 동일한 시왕도상이 판각되어 첨부되었으며, 이것이 고려시대 이후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¹⁰⁸⁾ 따라서 현존 팔관재계의 시왕판화의 도상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그 이후 한국에서는 보정산석굴 지옥변상 중 10지옥도 또는 『팔관재심요』 시왕판화에 보이는 시왕과 주재지옥에 대한 개념이 알려져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강희26년(1687) 묘향산 보현사에서 개관된 『예수시왕생칠경』에 첨부되어 있는 「十殿閻君聖誕日期 玉匣記」¹⁰⁹⁾와 『釋門儀範』 下篇 「諸聖指定日」¹¹⁰⁾ 등은 시왕과 지옥의 명칭, 원불 등에서 『팔관재심요』의 시왕판화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문헌에서와는 달리 조선후기에 이르면 시왕도의 지옥장면에는 위에서 살펴본 각 왕의 주재지옥과는 다른 지옥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 시왕판화가 판각되던 16세기경까지는 대족의 지옥변상과 동일한 시왕도의 도상이 알려져 있었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그와는 다른 도상이 성립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조선후기 시왕도에서는 제1진광대왕도에 鐵床地獄, 제2초강대왕도에 抽腸地獄, 제3송제대왕도에 拔舌지옥, 제4오관대왕도에 鑊湯地獄, 제5염라대왕도에 確磔地獄, 제6변성대왕도에 刀山地獄, 제7태산대왕도에 鋸解地獄, 제8평등대왕도에 夾山地獄, 제9대왕도에 業秤地獄, 제10대왕도에 黑暗地獄 등이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도상은 중국이나 일본의 시왕도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독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시왕도상은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에는 중국의 시왕도 및 보정산석굴 지옥변상에 묘사된 10지옥의 도상에 영향을 받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우리식의 새로운 도상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8) 安輝濬, 「高麗 및 朝鮮王朝 初期의 對中繪畫交涉」, 『亞細亞學報』13(1979), pp. 141-170.

109) 『玉匣記』는 시왕의 聖誕日에 대하여 언급한 중국 道教經典 중의 하나인데, 1687년 普賢寺에서 개관된 「十殿閻君聖誕日期 玉匣記」는 道藏本 玉匣記 또는 流布本 玉匣記와는 다른 것으로 여기에서 시왕의 성탄일을 차용하고 당시에 알려져 있던 글에서 각 왕에 지옥을 배치하는 모티프를 차용한 뒤, 민간에서 유행하던 『壽生經』의 내용까지 덧붙여 민간신앙용으로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道藏本 玉匣記 또는 流布本 玉匣記에 대해서는 吉岡義豊, 「中國民間の地獄十王信仰について」, 『道教の研究』(五月書房, 1989), pp. 251-259 참조.

110) 安震湖編, 『釋門儀範』(下)(法輪社 前叻商會, 1983), pp. 300-301.

VII. 맺음 말

이상에서 중국 보정산석굴의 지옥변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시왕도상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인도, 중앙아시아에서 불교의 수용과 함께 지옥사상이 전해져 남북조시대 이후 다양한 지옥변상이 제작되었다. 특히 당대에서 송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吳道玄, 張孝師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사원의 벽화로 지옥변상을 즐겨 그렸으며, 때로는 五趣生死輪圖의 형태로, 또는 시왕경변상도와 지장시왕도의 일부분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서역에서 盧舍那法界人中像의 도상이 전래되어 盧舍那佛의 신체에도 지옥의 형상이 묘사되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사천성 대족현의 寶頂山石窟 제20호감에 조각된 지옥변상은 그야말로 역대 중국의 지옥변상을 모두 종합화한 것으로, 시왕의 심판모습을 비롯하여 亡者들이 벌을 받는 18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불교의 명부신앙이 한 곳에 집약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옥변상은 석굴의 조성자인 趙智鳳이 密敎系 僧侶라는 점에서 밀교도량을 표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장보살의 형태가 밀교 경전에 의거한 寶冠形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顯敎系 經典, 僞經 등 다양한 경전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제3단에 묘사된 시왕의 심판장면은 唐代에 成都 大聖慈寺의 沙門 藏川이 찬술했다고 전하는 『預修十王生七經』에 의거하고 있으며, 제1단과 제2단의 지옥 장면은 당시 민간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大方廣華嚴十惡品經』을 비롯하여 『地藏菩薩十齋日』, 『大乘四齋日』 등은 물론 『護口經』, 『華鮮經』, 『出耀經』 등에 이르기까지 시왕과 지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경전을 참고하여 조성하였다. 따라서 이 지옥변상은 당시 四川地域의 불교의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옥변상에 표현된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남송대 민중들의 지옥사상과 생활상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寶頂山石窟의 지옥변상은 현재 그 도상적 연원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우리나라 시왕도상의 기원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시왕과 主宰地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인 八關齋 시왕판화(1529년)의 도상이 기본적으로 대족 지옥변상의 10지옥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당시 남송대에 널리 알려졌고 따라서 보정산석굴의 지옥변상에 표현된 10왕과 10지옥의 요소가 고려와 중국간의 교류를 통하여 전해져 늦어도 16세기 이후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후 조선후기 불교계에서는 보정산석굴 지옥변상의 10지옥과 동일한 시왕의 주재지옥이 성립되어 오늘날까지도 통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후 시왕

도에 표현되는 시왕도의 지옥장면에는 이와는 다른 지옥이 표현되고 있어 도상과 개념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大足 보정산석굴의 지옥변상은 고려시대 이후 한국의 시왕의 주재지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정산석굴의 지옥변상에 관한 고찰은 중국조각사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의 시왕신앙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A Study of the Sculptural Representations of Hell at Baodingshan Cave Temple in Dazu

Kim, Jung-hee

This article examines the sculptural representations of hell at Baodingshan (寶頂山) Cave Temple in the Dazu district in Sichuan Province, China. The Baodingshan Cave has been a focus of much attention for a long time for abundant carvings of Buddhist, Confucian, and Daoist subjects from the Tang to the Song dynasty. The representation of hell from the Southern Song dynasty in the height of 14m and the width of 20m is located in the 12th niche of the Great Buddha Bay (大佛灣) at Baodingshan Cave near Ta river. The four-tiered scenes in this carving are based on the belief of hell in the Southern Song dynasty, and are identical in form with the pictorial illustrations of the Ten Kings of Hell of the same period. Therefore, they are essential materials for understanding Chinese belief of hell in this period. It is notable furthermore that the scenes of the Ten Kings of Hell at Baodingshan cave are identical with the depictions of the same subject in Korea. Although it has been presumed that the representations of hell in China had some impact on the formation of the belief of the Ten Kings of Hell in Korea,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ir relationship.

This article starts with exploring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depictions of hell in both painting and sculpture. This is followed by the examination of the examples in China, which were profusely produced beginning in the Six Dynasties period. Buddhism and Buddhist art in the Sichuan area is considered for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for the creations at Baodingsha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depictions in Baodingshan Cave and the textual sources for the visual images is another important concern in this discussion. Finally, the possible influences of the example in Baodingshan Cave on Korean paintings of the Ten King of Hell is discussed.

The depictions of hell in Baodingshan Cave is considered as a condensation of Buddhist belief of the netherworld vividly illustrating the Ten Kings of Hell and judging the deceased

and 18 *narakas* where they receive due punishment. Because the patron of this cave, Zhao Zhifeng (趙智鳳), was an Esoteric Buddhist, one may have the impression that this carving was also founded on Esoteric Buddhist doctrines. However, except for the detail in which Kṣitigarbha wears a crown as described in an Esoteric Buddhist scripture, it seems more likely that it was based on a variety of Buddhist texts. The scenes of the judgment of the deceased in the third tier is based on *Yuxiu shiwang shengqijing* (預修十王生七經), which is known to be the work of Cangchuan (藏川), a Buddhist monk of Dashengzusi (大聖慈寺) in the Tang dynasty; the hell scenes in the first and second tiers are based on a variety of contemporary popular Buddhist texts such as *Dafanguang huayen shiepinjing* (大方廣華嚴十惡品經), *Dicangpusha shizhairi* (地藏菩薩十齋日), *Dasheng sizhairi* (大乘四齋日), *Hukoujing* (護口經), *Huaxianjing* (華鮮經), *Chuyaojing* (出耀經). Therefore, these scenes of hell reflect various features of Buddhism in the Sichuan area of the period, and, at the same time, vividly illustrate the notion of hell and the life of the people during the Southern Song dynasty through visual images.

In addition, the depictions of hell at Baodingshan Cave is important in bringing to light the origin of the Korean paintings of the Ten Kings of Hell, whose iconographical source is not known clearly yet. The earliest extant example in Korea is a famous print dated 1529 included in *Foshuo baguanzhaijie mimi qiusheng zhengtuxinyao* (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 published at Mansuam (萬壽庵) in Kwangyang, the Chöllanam-do province. The fact that this print is basically identical to the depictions at Baodingshan Cave leads us to believe that the concept of hell current in the Southern Song dynasty already spread to Korea at the latest by the 16th century through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yŏ and Song China. In this process, the iconography of the Ten Kings of Hell, essentially identical to the depictions of Baodingshan Cave, was established during the late Chosŏn dynasty and used consistently ever since.